



두려워 해야 할 것 겁내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 두려워
겁내어 이같은 선택 소견 말
고 산다면 마침내 죽어서 지옥에 가라.
(法句經·지옥품 348절)

東大新聞

발행 일	주간 일	간단 일	간단 일	간단 일	간단 일	간단 일
1990년 4월 18일	1990년 4월 18일	1990년 4월 18일	1990년 4월 18일	1990년 4월 18일	1990년 4월 18일	1990년 4월 18일

제1045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단-10
1955.10.13 제3호우원훈(가)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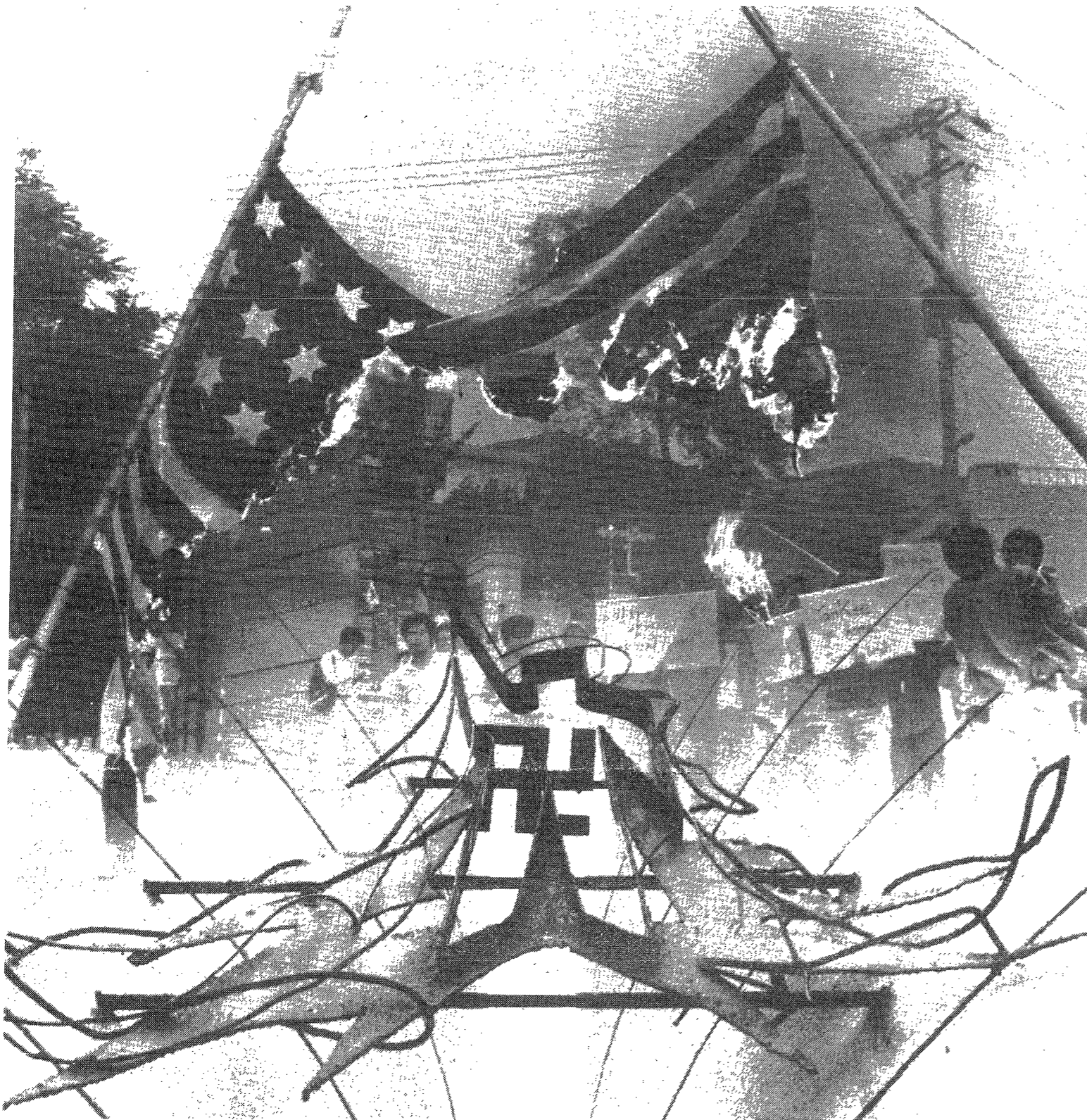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4월18일 (수요일) 【1】

젊은우리 그리움으로 만나 "해방둥이 하나"

통일이야 사월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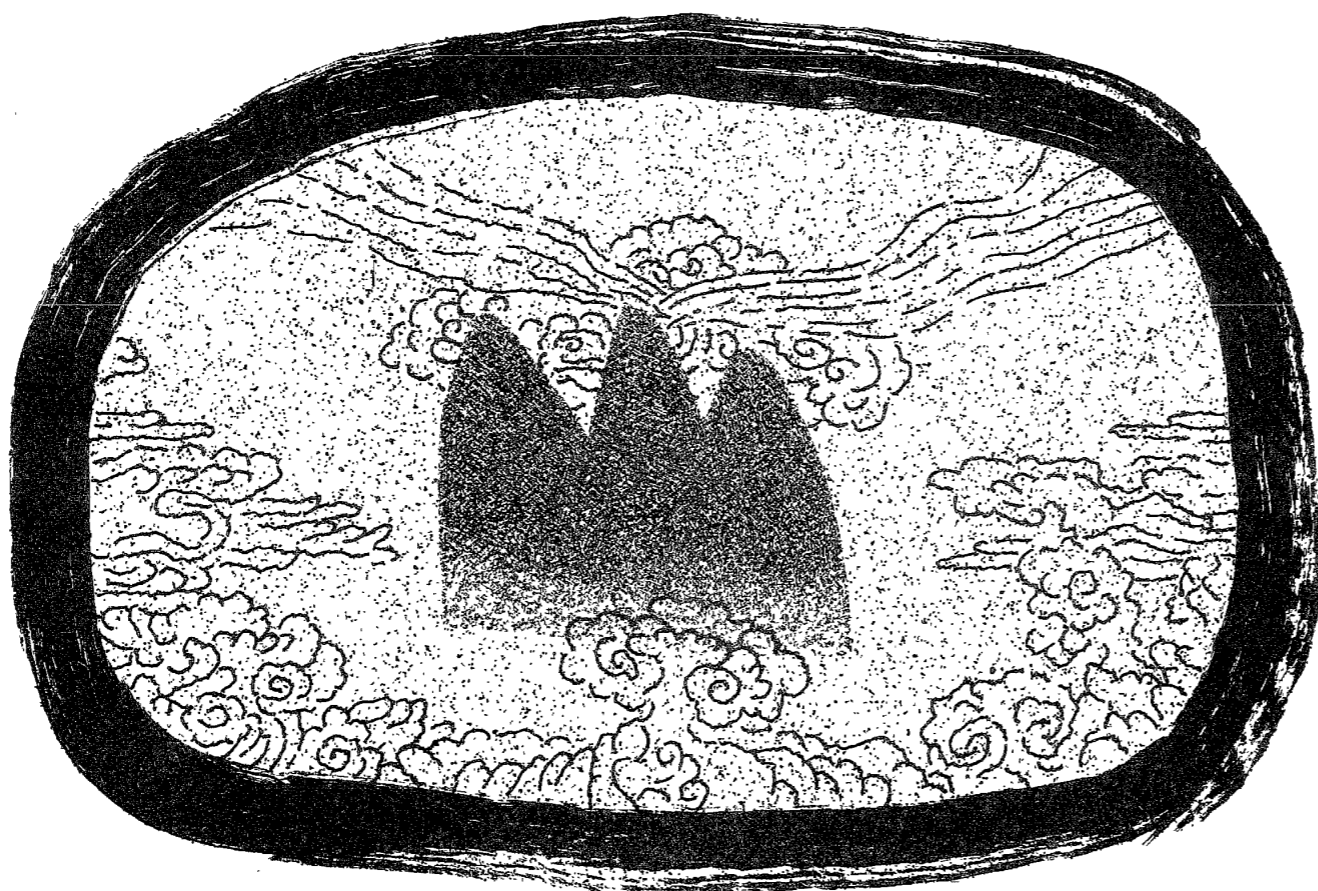
-4.19 30주년에 부쳐



사월아 이 가지내야
어드메 있느냐
갓스물 부푼가슴 안고 광화문으로
경무대로 달려가던 사월아
강산이 변해도 세번
네가 목놓아 독재타도 외치던 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
시집가 눈망을 맑은 아기 낳을
30년 세월 동안
해마다 산에 들에 꽃 피고 새우지만
너를 잃고 '맞는 봄은 슬픔이었다.
사월아 이 가지내야
돌아오그라
기다림은 울음이 붉어 진달래로 피어나는데
이 환장할 봄날
어드메 있느냐 너는
5.16에 짓밟히고
수인이 되어 쇠창살에 갇혀 신음하느냐
망월묘지 무명열사 주검으로 누웠으나
지금도 잊지 못해
희망에 부푼, 네 가슴을 살아와
내 핏줄 뜨겁게 하는데
그날의 하나됨 어데두고
오지 않느냐
사월아 이 가지내야
인자는 오그라
돌아오그라
간헐 몸이거든
자유로 드나드는 다스운 햇살로
오그라 죽은 몸이거든
육신에 구차하지 않는 넋을
오그라
사월아 백제 가지내야
맨 몸뚱아리로 오그라
아직은 젊디나 젊은 우리
그리움으로 만나
해방둥이 하나
남아야 쓰지 않겠느냐. (동국문화회)

사진:조사부

동대신문40주년기념 / 동국정신선양기획광고 5



우리보라 진리의 동산

"저기 저
東岳에 서면 슬픔까지 맑아진다며"
"간밤
하늘이 깨질 듯한 큰소리는
山만한 독재와 독선을 꾸짖는 천둥이었는데"

"정말 깊고 높은 동산이야.
바다보다 큰산보다"
"맞아
世上이 그안에 있거든"

평속 깊이, 하늘 끝까지
지구를 돌고 돌아 나온 맑은 섬리가
너와 나, 우리들 마음에서 걸려낸 기운이
여기 모여 있다.
우리 보면 한없이 높고
굽어 보면 한없이 깊은
眞理가 태어나는 곳.

靑鶴이 우는 萬人의 동산.

社說

이시학총 기점으로 전입금 확보돼야

지난 11일 본교 재단에서는 타워호텔에서 제1차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현 재단 이사진 퇴진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어왔던 재단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황진경·이지관등 현 이사진 9인과 의원(총무위원장·정대(총회의장)·도원(파견사무장)·정재철(총동원회장) 등 4인의 총 13인을 최종확정함으로써 일단락 지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단 이사진에 대한 논의과정은 부정입학사건으로 황 이사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재단이사회의 사표를 제출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사표가 반력해 현재 이사장직에서만 풀려나고 이사로 남아있으며 이지관 전총동원 이사진 전면개편시 사의를 표명했으나 현재 이사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중단에서는 그동안 본교에 대한 입지조건이 미약했었다는 점을 자기전담하고 지난 2월 21일 임시총회중 황 이사장을 총동원 등 9인의 스님이사사를 선임하고 부정입학사건과 학원의 정상화에 책임을 물어 현 이사진의 전면퇴진을 중용했으며 교육경력과 숙연이사 1/3이상등의 실정법과 동일어진 책임없는 처사로 인해 현 이사진 전면퇴진이 무효화된 바 있다.

재단이사진 개편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89년 부정입학사건으로 그동안 각종에서는 재단혁신을 통한 동국혁신을 부르짖을 만큼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르면 현 이사진 9인이 전격적으로 나뉘어 재단 혁신의 기점으로 부각된 인적구조 혁신에 대해 그동안 논의된 성과물들을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재단혁신의 또하나의 쟁점인 물적구조혁신 즉 재단전입금 문제는 새로 영입된 4인 이사들의 행동여부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4인의 후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영입된 4인의 이사들은 의원(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의 경우 지난 해 봉은사를 매각해 2백억원에 본교발전에 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정대(총회의장)스님의 경우는 동국사태에 대해 지난 2월 임시총회중 황 이사장, 총무원장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권을 행사할 것을 결의하는 등 본교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기회에 본교에 대한 중단의 재조정원이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듣고 있다.

이번에 이사진이 확정된 만큼 현 이사진은 명예나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부정입학 사건을 각인하고 새로 영입된 4인과 합심해 본교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구체적이고 발전안을 실행할 물적구조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명망과 재력을 갖춘 이사들을 영입해 동국발전의 중심에 세워야 할 것이다.

경주총학, 장기적 전망하의 사업추진 필요

지난주 경주캠퍼스 학생대표들로 구성된 '상경투쟁선봉대'의 활동이 명반 성과 없이 끝난 것은 무원칙한 투쟁의 당연한 소산이었다.

이번 상경투쟁은 지난 10일 열린 비상학총회에서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결의했던 것으로 총학 학자취위가 학교당국에 제시한 스터디학과 학생회관의 신·중·중·중 스터디입생등록금인상분 환불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申院性총장직위와 吳綠園이사장의 면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절거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는 학생들의 기대를 저 버렸다. 총장은 이미 퇴근후였고, 다음날 역시 재단이사회권으로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파악하지 못한채 무원칙한 절거를 감행하고 차주대체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절거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고품을 자초하고 말았다.

특히 경주총학은 구체적계획도 없이 경주캠퍼스 전 행정부서를 절거한후, 계속적인 토론, 집회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호드러지는 대의를 절거하지 않았으므로 학생대중들로부터 '절거를 위한 절거'라는 비판을 받

을 수밖에 없었다.

더우기 학교측의 구체적 확답도 없이 수업거부를 철회하는등 무원칙한 사업태도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주총학이 중장거리 임명후 달라진 학자취위의 사안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막연히 인적·물적구조 혁신이 학자취위의 주요 관건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던 것은 학자취위에 대한 연구부재때문이라 볼 수 있다.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이 진정한 학원 자주당성과 노동조합, 조국통일 등을 안아 올 수 있음을 각인하고 실천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사건의 주체가 총학이 아니라 학생대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내용있는 지도자집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릴때마다 당면사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조차 마련못했던 점, 집행부내 조직의 강고 한 통일등은 두말할 필요없는 실정이다.

단순히 즉흥적 문제인식에 따라 학교측에 개선 요구를 결의하고서서 모순이 해결되어지는 않는다.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학우대중을 선동하는 것만이 싸움을 우리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본원칙임을 명심해야겠다.



林尙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중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실로 막중하다. 물론 고도로 산업화되고 온갖 정보가 폭주하는 현대사

권력과 자본... 두개 칼날들이대

이러한 점에서 해방이후 40여년간의 우리의 역사속에서만 도 독재권력의 민중들에 대한 탄압사는 언론에대한 1차적 통제와 거세로 출몰되었으며 끝내 오늘날의 정권 후보수단으로써의 언론을 창출해내었다.

이승만 자유당정권시 가장 진보적신분으로 평가되었던 경향신문이 59년 폐간되었고 유신시대에는 동아일보가 광동인입과 조선·동아일보의 기자해적에 이어 급기야 80년 전두환정권은 언론통제법을 통해 8백여명의 언론인을 강제해직하고 언론기본법을 제정하는등 언론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권은 매시 정보활동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영방송의 허용 문제는 당초 87년 민주화과정에서 11월 11일 약법으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재야, PD연합회, 방송사등 '민간주도'의 형식으로 제기되었다. 그동안 정권의 총출력 나팔수로서, 관제언론의 모방(?)이었던 KBS, MBC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정권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될수있는 방송민영화로 통해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보자는 논리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후로 공영방송체도를 내세워 80년 단행된 방송통제법의 최대목적은 효과적인 언론통제였기에 현안대방송 독점체제는 극복되어

시작하며 중전의 민영화추진의 입장을 재고하게 된다.

그럼 현 정권의 추진하려는 방송민영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는 다름아닌 공영체도를 통한 가시적이고 감성적인 통제보다는 민영화방식으로 권력과 자본이라는 두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방송사의 설립, 운영은 일반기업이나 인쇄매체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막대한 소요계원을 요구 받는다. 이런 연유로 현 상황에서의 민영화는 개별기업의 소유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민영=민주적'이라는 도식이 아닌 재벌의 이윤추구 논리에 의한 상업적 저

탄압 극복하고 자주적 방송 실현해야 '민간방송' 열망 장악과 통제로 왜곡

회에서 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전달함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키는 원동적인 차원에서의 기능도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보다는 정지권력을 창출하고 유지시키는 통치수단으로써의 영향력을 간파할 수 없을 것이다.

강압적 탄압으로 언론을 통제함과 아울러 제도적 장치를 보 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언론 통제를 꾀해왔다. 최근 예기되는 방송민영화의 문제 제기는 민간방송이라는 본래의 위상과는 달리 정권의 방송 장악과 통제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을 의심

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방송개편 논의는 88년 정부가 민영방송 허용을 포함한 방송제도 개편을 단행한다는 전제하에 방송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도해나감으로써 정권의 언론정책의 새로운 전술을 드러나

고 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방송개편 논의는 88년 정부가 민영방송 허용을 포함한 방송제도 개편을 단행한다는 전제하에 방송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도해나감으로써 정권의 언론정책의 새로운 전술을 드러나

동업 기사석

명진관 공간문제 눈뜨고 못봐 2천5백명 화장실1개에 매달려

내가 대학에 들어오후 포대대 선거공약 속에 공간문제에 거론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타당해도 마찬가지로 재단, 포대대는 유독 공간문제에 시달려다. 세미나실 확보, 여학생 휴게실, 어학실, 자료실등 이러한 문제는 재단측과 포대대 당장은 강요실도 현저히 부족 한 상태이다. 특히 영문과, 실업실같은 경우는 9.8%인상된 등록금을 내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매년 진을 유지하면 예산부족은 틀림 없고 실형 실수라는 일 정액을 우리는 학교에 지불한

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어 지금 나는 포대대의 변화상황은 한번도 볼 수가 없었으며 포대대 특성에 맞는 자료실, 세미나실 한칸 마련한 것은 기초조차 상상 못했다.

이것이 비단 명진관 건물, 포대대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학교에 산재해 있는 건물문제는 어떻게 해결 되어야 하는가. 이제는 더이상 학교당국에 기대할 수도 가 다 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학습조건, 복지문제에 얼마만큼 고안 했는가, 최소한의 고안을 했다면 이것은 아니었어야 한다.

포대대의 문제는 포대대에선 풀어야 한다. 다시한번 화장실에 가보자. 명진관 강의실 주위를 돌아보자. 학생회건물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그리고 다시한번 학교당국에 건의해보자.

우리가 매년 등록금을 낸다. 더구나 올해는 9.8%인상된 등록금을 내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매년 진을 유지하면 예산부족은 틀림 없고 실형 실수라는 일 정액을 우리는 학교에 지불한

경주학생위한 셔틀버스 시급 등·하교시 만원버스에 시달려

우리 경주캠퍼스 구성 학우들의 대부분은 타 지역(경주외)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학교 주변 지역에서 하교와 주차를 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통학을 하고 있다. 하교와 주차장들은 학교 주변의 비싼 땅값때문에 학생들, 동원들의 시내 일원에서 땅을 구하는 사 하던 그나마도 제때 구할 수 없어 집이 멀어도 통학을

해야만 하는 학우들도 있다. 이렇게 학교가 생기면서 학교 주변의 인구가 많아지고 자연히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즉 셔틀버스가 없는 관제로는 많은 학우들이 40분과 41분으로 등교 시간에 물리 게 되니 만원 버스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해야만 하는 학우들도 있다. 이렇게 학교가 생기면서 학교 주변의 인구가 많아지고 자연히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즉 셔틀버스가 없는 관제로는 많은 학우들이 40분과 41분으로 등교 시간에 물리 게 되니 만원 버스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東國漫評

임지성

◇얼마 안 남았다!

譯經 30년의 금자탑!!

長阿含經 中阿含經 雜阿含經 阿含經이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진 경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경은 불교의 근본경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가신 뒤 곧 結集된 이 경전에서는, 우리는 佛敎全體에 걸쳐 부처님의 제인이 담긴 가르침을 접할 수 있어 可謂 불교의 寶庫이다. 참고 재미있으며, 또한 풍부한 佛敎의 聖典은 現代人의 命門을 생명을 운명하게 한다. 8,000원

清虛堂集 佛敎의 朝鮮王朝 6백년 중에서 불교의 命脈을 차연하게 있게 한 西山大師의 文集으로서 西山大師의 사상이 담겨 있다. 특히 그의 佛敎觀이 佛敎一致의 한국불교를 그 때 이 때 胎動시키고 있었음을 주목할 일이다. 6,000원

法華經 法華經이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新譯 華嚴經 佛敎의 哲學와 修行의 完成을 선포하고 있는 이 경은 불교의 심오한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佛敎者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경전이다. 특히 平生을 譯經과 經講으로 일관한 역자의 간결하고 해박한 註釋과 佛敎入門의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8,000원

法華經 法華經이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佛本行集經 佛本行集經이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中論·百論 龍樹가 龍樹佛敎의 印度哲學思想一般을 原形으로 비판하여 대승불교의 理論的基礎를 쌓은 것이 中論이다. 그리고 이 中論의 說을 받아 다른 철학이나 종교의 주장에 대한 論議를 통하여 대승불교의 空·無我說을 밝힌 것이 百論이다. 8,000원

金剛三昧經論 불교의 극히 중요한 경을 교리를 설명하며 불교의 空·無我·緣起를 설명하는 金剛三昧經에 대한 龍樹의 註釋으로서 龍樹의 佛敎觀 전체를 알 수 있는 佛書. 우리 나라 저술로는 최초로 大藏經에 入藏된 論書인 불교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入楞伽經 入楞伽經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法華經 法華經이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法句經 眞理의 말씀이라는 原題가 가리키듯이 부처님의 聖語를 譯로 엮은 經으로서 東

西古에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이 바로 이 법구경이다. 이 법구경의 詩 體는 詩 體로 다듬어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華嚴經 華嚴經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撰集百緣經 撰集百緣經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大樓嚴經 大樓嚴經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法華經 法華經이란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설하신 佛敎의 聖典으로 佛敎의 根本을 밝히는 경이다. 8,000원

法句經 眞理의 말씀이라는 原題가 가리키듯이 부처님의 聖語를 譯로 엮은 經으로서 東

東國譯經院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東國大學校 內
전화·직통: 267-8578/교한: 267-8131-9
우체국대체국: 012328-31-0510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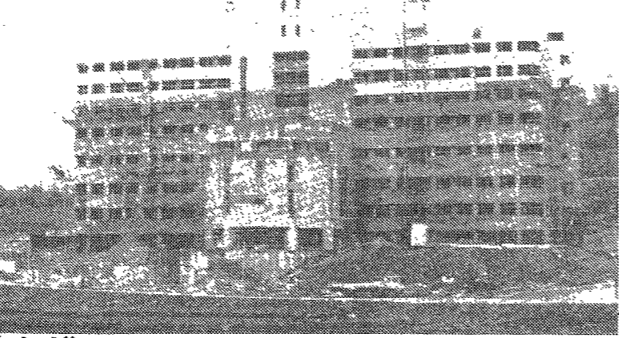
대학과 병원이 함께 살아야 한다

'첨단의학 연구'로 새 동국학풍 예고

동국의료원 현주소 <1>

본교 동국의료원의 하나인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현재 73.6%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개원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입원병상수 3백 배드 규모의 2차 진료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기반 및 의대생들의 임상실습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주병원의 개원은 현재 동국의료원 산하 의과대학(경주병원·포항병원)·한의학대학(경주한방병원·방배동한방병원)포함 7백배드 규모의 수준으로 본격적인 메디칼센터 건설을 위한 교두보로써 동국의료원의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향상 나타난 수처에 비해 동국의료원 산하에

의 증축문제, 경주한방병원의 시설개선문제 등은 가시적인 해결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건설중인 경주병원의 경우는 개원에 필요한 2백억 상당의 건축 및 기자재도 인공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경북 포항시 죽도2동에 위치한 포항병원의 경우, 실질 가동배드수가 2백90명상으로 완전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며, 포항시민 34만명을 비롯 영덕·울진·경주지역 등 의료시혜자수는 1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사실상 3백배드 정도의 증축이



"기대"를 9월 개원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경주병원. 원 체계에 관해서는 동국이미지개선팀이나 학교발전을 위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모습에

당장 90년도에 소요될 경주병원 운영비만도 파악된 금액이 70여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제한 기타 사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은 재단의 직

재단 - 학교당국의 장 단기 계획추진 시급 전문 의료인·교육여건 확보가 발전의 관건

병원 및 의과대학·한의학대학의 현상은 재단의 지원과 학교당국의 장기적적대안을 요구 하고 있다. 본교 설립 이래 철학·불교학·국문학이 東國學風의 전통이었던 최정단의 의과대학 및 한의학대학의 설립은 제2의 동국 중흥을 모색하는 계기였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병원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포항병원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방배동 한방병원, 경주한방병원 모두가 상당금액의 투자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들 세병원에서 연간 거둬들이는 순이익이 수십억원에 달한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라도 일단 의료

도 불구하고 크게 대별되는 두 가지 문제, 즉 전문의료인력 확보와 본과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등 교육여건의 확보는 현실적 문제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 논의가 거의 중단된 바와 같은 일산·분당지역의 제3병원 건립(불교중앙병원 메디칼센터)문제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긍정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극적 지원없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불교정진에 입각한 지역사회에 봉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학교중흥의 측면에서도 의료원 체계의 점검과 발전방안 모색은 본교 개교 1백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만섭 기자>

불교대 북한 불적 답사 추진

조선불교도 연맹과 교류, 유점사등 순례

전대협차원의 과다한 남북교류추진요격이 일고있는 가운데 본교 불교대에서도 지난 10일 '북한불적답사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건준위를 결성, 실질적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작년 불교대학생회장선거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번 '북한 불적답사'는 현 건준위가 오는 27일 열린 불대정치학생총회를 거쳐 추진위로 발족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답사는 금강산 유점사, 묘향산 불교현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학술적교류도 모색하게 된다. 이번 답사는 현 건준위가 오는 27일 열린 불대정치학생총회를 거쳐 추진위로 발족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불교현실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하는 등 학술적교류도 모색하게 된다. 이번 답사는 현 건준위가 오는 27일 열린 불대정치학생총회를 거쳐 추진위로 발족한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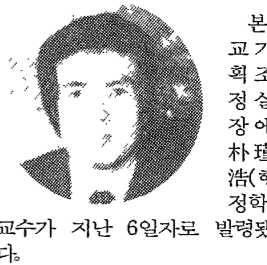
본지 창간 40주년 강연회등 기념사업 준비

본지가 1950년 4월 15일 창간 이래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1947년 東國月報를 발행했으나 필화사건으로 인해 중단되고, 1950년 4월 15일 申國柱, 朴來春, 李鍾翰 등 '新聞同人'들이 東國新聞창간호를 발행, 東國新聞, 東大時報 등의 제호변경을 겪으며 1962년 현재의 東大新聞으로 발행되고 있다. 89년 3월 1일자 1,012부

터 세로체에서 가로체로 변경, 현재 1045호를 발행하고 있다. 필화사건과 배포금지등을 겪으며 동국인과 함께 40년을 지낸 동대신문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사집행 제작, 매일 정기적 초청강연회, 동국정신선양기획강고등을 추진중이며 연례행사도 고교백일장, 동대문학상, 학술상등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에 관한 서충련과의 연계에 대해 박승수(인철·3)군은 "타학교와의 준비연방차이로 인해 서충련차원에서 한꺼번에 남북신청을 하기보다 학교별로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불교대학생회장 토진(신학·4)은 이번 답사의 추진의의에 대해 "단결된 불교학연구를 통한 학술교류와 함께 통일논의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에 朴瑾浩 교수



교수가 지난 6일자로 발령됐다. 본교 기획조정실장에 朴瑾浩(행정학) 교수가 지난 6일자로 발령됐다.

"재단의 발전적변신기대"

이-감사보선...재원확보가 선결과제

새이사진구성과 90년 예산심의를 안건으로 재단이사회(이사장·吳錫淵)가 열려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보설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타워호텔에서 열린 이번 이사회의는 李鍾翰(前총장), 黃錫經(前이사장)등 부정부패사건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표명한 바 있는 9인 이사에 대한 사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2월 21일 총회에서 이사회로 추천한 9인중 徐義玄(총무위원장) 徐正大(총회위원장), 趙憲國(파계사주지), 鄭在哲(총동맹위원장)을 이사로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해법(신홍수주지), 삼지(상원사주지)스님이 선출됐으며 감동모감사는 유인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의는 신임재단사무처장에 강자우(금강사주지)스님을 지난 11일자로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자우스님은 75년 고대 국문과를 졸업, 불교신문사 편집국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특별시 경찰국경경찰, 재단법인 금강사 대자장학회 이사장, 조계종호계위원등을 맡고 있다.

원에 대해 본교에 쓰지 않았다. 이번 이사진구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불교계와 동창회 내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됐다는 것과 李鍾翰(前총장), 黃錫經(前이사장)이 그대로 유임했다는 사실이다. 중단에서는 중립학교인 본교에 부정입학 사건이후 관심을 갖고 동대사태수습에 나서 9인이사진구준용과 이사 후보선출로 재단과 불협화음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의에 중립사후보중 3인이 참여함으로써 이에게서 중단에서 보여줬던 중립학교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번이 이사가된 재단이사회의는 단숨에 재원확보가 선결과제

명예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재단의 물적구조 혁신, 일미안담의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재원확보에 나서야 하며 이사진구에서도 명망과 재력을 갖춘 인사로 확보, 실질적 재정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잡아야 한다. 또 감사로 선출된 해법(신홍수주지), 삼지(상원사주지)스님도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한 인사이며 해법스님은 신동광학금을 지원하는 등 학교발전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온 사람이다. 이번이 보선된 이사회의는 부정입학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원확보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남철우 기자>

수습기자 추가 모집

-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에서는 어둡고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 ○ 명
 - ②응시자격: 1學年 男女 在學生
 -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진기자
 -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사진 1매(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 ⑤원서접수: 서울 5월 3일 오후 4시까지
경주 4월 26일 오후 4시까지
 - ⑥시험일자: 서울 5월 3일 오후 5시
경주 4월 26일 오후 5시
 - ⑦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 ※합격생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1학기 등록률 1백% 신입생 등록금 환불 2.2% 확정

지난 4일의 '90학년도 제1학기 추가등록, 마감 결과 서울·경주 총등록률이 100%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6%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근 몇년간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했다. 이번학기의 등록률은 사실상 각과별 정원 총인원인 법정인원의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그 이유는 첫째, 금년도 복학생 수가 1천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3~4백명이 늘어나 휴학생수를 빼더라도 법정인원보다 1백여명이 더 등록을 했기 때문이며 둘째, 휴학생중 이미 등록을 마친 학생이 많았다는 것이 이번 등록률 상승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등록마감에 따라 학적과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미등록자에게 제적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는 문교부등록 시한이 6일이나 경과한 지난 16일까지 등록접수를 했으나 더 이상 등록을 미룰수 없게되자 제적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등록률이 최종 집계됨에 따라 90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 등록금 환불액이 수업료·기성회비 포함, 2.2%수준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리과에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각 단과대 교학과로 환불신청서를 배부, 회수하게 된다. 학교측은 이번 신입생 등록금환불에 대해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12%가 인상됐다는 근거를 들고 재학생 등록금이 9.8%인상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인 2.2%를 환불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불방법은 일단 환불신청서가 회수되면 4월말경부터 환불해 줄 예정이다.

보수

하늘이 언제 자신이 푸르다고 발현하지 않고 그렇게 불리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다. 단지 사람들이 짐짓 하늘이라는 이름과 푸르다는 색깔을 지어냈을 뿐이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부귀와 빈곤등의 개념들도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형상이나 이름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파악할 수 없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상대적인 양극의 개념을 만들어서 분별해 낸 소신이다.

"無所住而任其心" 즉 "어떤 개념에 속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는 말이 있다. 세상은 사물이 지어낸 영화와 같아서 그속에 절연의 배경이 나뉘거나 왕자의 배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말

은 배역을 잘 소화해 내는데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영화에서는 별도의 작가가 있어서 그가 지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를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

가 배우이면서 동시에 관객이 된다. 여기에서는 어떤 지향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또는 삶 자체가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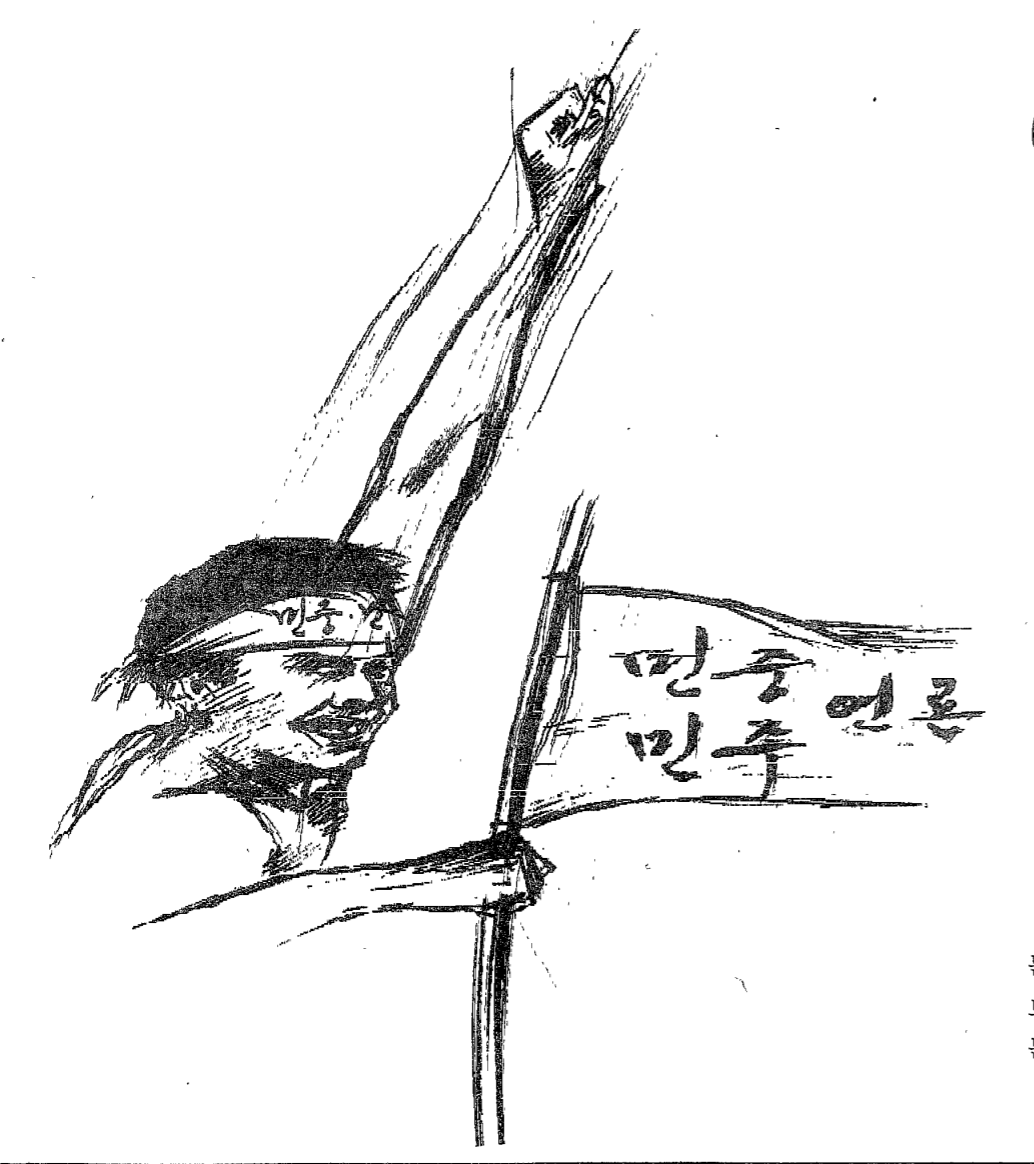
극장에서 감동적인 영화를 관람할 때, 우리는 영영을 면서도 교동이 아닌 환화를 느낀다. 그러나 현실생활에서 영화속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교동이 받게 된다. 영화를 볼때는 "나" 또는 "ego"의 관념이 없이 슬픈 즐거리의 이야기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金剛經의 위구절은 우리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상생활을 영화로 제작하듯이 예술적으로 꾸미고 영화처럼 평화롭게 관조하라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그 것으로 향한 집착없는 정열과 최선의 과정일 뿐이다. 단지 이 정열이나 과정이 거 짓되거나 醜하지 않아야 한다.

釋之鳴

여러분과 함께 살아 숨쉬는 민족자주언론 東大新聞



민족자주언론의 정도를 걸어온 동대신문사 기자일동은 읽히는 신문, 사랑받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생활공간을 찾아 부단히 뛰고 있습니다

동대신문 창간 40주년을 축하합니다

- 건대신문사 고대신문사 광운대학교보사 국민대학교보사 국제대학교보사 단대신문사 대학신문사 대학주보사 덕성여대신문사 동덕여대신문사 상명대학교보사 서강대학교보사 서울산업대신문사 서울시립대신문사 서울신학대신문사 서울여대보사 성대신문사 성신학보사 세종대학교보사 숙대신문사 숭실대신문사 연세춘추사 외대학보사 이대학보사 중대신문사 홍익대학교보사 한대신문사 한성대학교보사 항공대학교보사 흥대신문사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

기획취재 전기통신공사를 찾아

직업병...사람인가 기계인가

공포의 병 납중독의 현재 실태를 조망한다

○... 그동안 잊혀질만하먼...
 ○...한번씩 일간지 사회면...
 ○...경시하는 직업병이 상당...
 ○...히 심각한 문제에도 불...
 ○...구하고 그냥 지나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비록 전...
 ○...기 통신 공사의 예만...
 ○...들어 글을 쓰지만 새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 본다.

그 후 1년이 채 안되어 납중독 직업병 발병을 35.7%라는 경이(?)로 운 수치가 나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전기통신공사측은 오히려 "올해 초까지 매년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했고 특별한 사고도 없었는데 이번이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는 '지나치게'정밀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전기통신공사전부 직원의 직업병을 살펴 보면 그러한 수치가 결코 '지나치게'않았음을 알게 된다.

통신 공사측은 환경의학 연구소의 '지나친'정밀검사를 오히려 해명했지만 반대로 전기통신공사측이 매년 실시한 종합검진이 부실했다는 반증도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낙후된 검사기재로 정확한 직업병의 판정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난 87년 노동부의 감독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어떤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갔는데 '메이드 인 저팬 1969'라 쓰인 기계를 사용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라며 미야 전화를 지부 김인창(42)씨는 실소했다.

전신전화국의 전로원이 납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80년 7월 동아일보에 최초로 실린 적이 있으나 의 심각성은 부족함이 없다. 전기통신공사의 정태문씨가 납중독으로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지자 노조에서는 구명대책위를 세우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납중독 뿐만 아니라 CRT요원, 계실, 전자실, 전력실, PCM실, 조정실 등 대부분의 작업장이 외부와의 공기차단으로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있다며 종합적인 직업병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C급·D급 환자 전원 산업재해 처리, 퇴직금 환자 전원 산업재해 처리,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며 구명대책위를 꾸리고 있다.

“전화선로원 정태문씨 납중독으로 중태” “전국의 전로원 35.7%가 납중독 환자” 얼마전 모 일간지에 실린 이러한 기사들은 사건 당사자인 전기통신공사 직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신전화국의 전로원이 납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이미 80년 7월 동아일보에 최초로 실린 적이 있으나



◆통풍이 전혀 안되는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 기계의 부족함이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동안 흔히 '진폐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직업병은 그외에도 '소음성 난청' '중금속중독' '유해광선장해' '화학물질중독' 등 그 종류만도 수십여종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매년 노동부에 보고되는 직업병 발생수는 8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중 97%에 달하는 7천7백60여명이 생산에서 발생한 진폐증, 소음성 난청등이고 나머지 3%에서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등이 나타나는 데 최근 고려대 환경의학 연구소에서는 전화선로원 전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전체 4천3백13명 중 1천5백43명이 납중독이라는 충격적 사실을 발표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수치상으로는 2백여명 이하야 할 판지가 이처럼 늘어났다는 것은 노동부에 직업병을 보고하는 사업체가 극히 일부라는 데 문제가 있다. 만일 모든 사업장에서 정밀검진을 한다면 직업병 판정을 받는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수치가 나오게 될 수 있다.

전원 내부에서 직렬한 대응방안이 없자 통신공사는 물론 사회문제에도 발전되지 못한채 '구멍이 담 넘어 가듯' 지나갔고 그 이후 전기통신공사는 납중독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들은 것이다.

“전화선로원 정태문씨 납중독으로 중태” “전국의 전로원 35.7%가 납중독 환자” 얼마전 모 일간지에 실린 이러한 기사들은 사건 당사자인 전기통신공사 직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원 내부에서 직렬한 대응방안이 없자 통신공사는 물론 사회문제에도 발전되지 못한채 '구멍이 담 넘어 가듯' 지나갔고 그 이후 전기통신공사는 납중독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들은 것이다.

깜깜하고 뜨거운 생지옥의 연속 철저한 검진으로 치료대책 요구돼

지하 하수도 터널과 연결되어 있어 맨홀이라는 작업환경에서 일하게 된다.

전원 내부에서 직렬한 대응방안이 없자 통신공사는 물론 사회문제에도 발전되지 못한채 '구멍이 담 넘어 가듯' 지나갔고 그 이후 전기통신공사는 납중독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들은 것이다.

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까닭에 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우도한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번의 정세 문제로 여기서 발단되었던 것이다.

“전화선로원 정태문씨 납중독으로 중태” “전국의 전로원 35.7%가 납중독 환자” 얼마전 모 일간지에 실린 이러한 기사들은 사건 당사자인 전기통신공사 직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원 내부에서 직렬한 대응방안이 없자 통신공사는 물론 사회문제에도 발전되지 못한채 '구멍이 담 넘어 가듯' 지나갔고 그 이후 전기통신공사는 납중독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들은 것이다.

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까닭에 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우도한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번의 정세 문제로 여기서 발단되었던 것이다.

“전화선로원 정태문씨 납중독으로 중태” “전국의 전로원 35.7%가 납중독 환자” 얼마전 모 일간지에 실린 이러한 기사들은 사건 당사자인 전기통신공사 직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원 내부에서 직렬한 대응방안이 없자 통신공사는 물론 사회문제에도 발전되지 못한채 '구멍이 담 넘어 가듯' 지나갔고 그 이후 전기통신공사는 납중독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들은 것이다.

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까닭에 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우도한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번의 정세 문제로 여기서 발단되었던 것이다.

밀착취재 입원한 정태문씨 주변

20년근속... 납중독 중태라니



◆지난 2월17일 납중독 약화로 병원에 누워있는 정태문씨의 처절한 모습

“그사람은 법이라도 잘 사람에요. 4남매 키우면서도 구걸할 한 번 보이지 않았는데...”라며 부인 김정임(52)씨는 말문을 연다.

얼마전 주요일간지 사회면에 크게 보도되어 관심을 집중시킨 납중독문제가 점차 사회적문제로 부각되면서 정태문(56)씨에 대한 안타까움도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정씨는 현재 명륜동에 위치한 고려대부속 혜화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1일에 입원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지난 달 26일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 인공신장을 가동하고 영양주사를 맞으며 목을 관통하여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복부에 고무호스를 꽂아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중태에 빠져 그의 가족과 동료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정씨는 현재 명륜동에 위치한 고려대부속 혜화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지난 2월 21일에 입원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지난 달 26일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 인공신장을 가동하고 영양주사를 맞으며 목을 관통하여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복부에 고무호스를 꽂아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중태에 빠져 그의 가족과 동료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

정태문씨는 지난 69년에 혜화전신전화국 선로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여년간 근속해 오면서 근면하

게 해야 할지...”라며 지친 목소리로 정씨부인은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회사측은 요주의자는 90년 상반기에 재검진, 맨홀 작업환경개선, 순환보조, 일용직 고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검진은 시설이 빈약한 전화국근처의 의원급 병원에서 실시하고 순환보조는 현실적으로 선로와 작업반원이 아니면 작업자체가 불가능해 회사측의 주장은 단편적으로 근본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정씨의 작업은 계속되어 납은 계속 그 몸속을 축적되어 갔고 결국 심해져가는 고혈압 때문에 다시 84년 병원을 찾았을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납중독으로 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7월부터는 집에서 요양해왔다. 올해 2월로 산책요양치러기간 1년이 끝나자 지난 2월16일 휴직에 따른 감봉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무리한 출근을 했다. 결국 정씨는 납중독에 의해 죽고 사규에 의해 죽음을 당한겁니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왜 별을 보느냐구요?”

꿈은 밤하늘의 아득한 나락속에서
 희망처럼 반짝이는 별무리들—
 백세 인간이 200억살의 우주를 동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왜 별을 보느냐구요?”
 호기심 때문이요, 우주보다 더 큰 수수께끼는 없거든요.”
 우주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움만은 모자라
 천문우주 아카데미 강사가 된 김병일(29세).
 자리를 잡아가던 컴퓨터사업도 그만두고
 이길로 나선 것은 그가 지닌 이상과학자서일가?
 “전 천문학자도 아니고 별이 좋아 이 일을 하는 것 뿐이예요.
 한가지 꿈이 있다면 천문학을 통하여 나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우주도 있다는 것을 알았자는 것이지요.
 과학의 대중화운동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과학캠프, 서적출판,
 과학교재보급 등을 준비중에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
 날 밤을 새우기 일쑤다.
 “자신의 신념만 확고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싶는지 찾기에 달렸지요.”
 과학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어린이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린이들은 순수해서 옳은 것은 곧 받아들이거든요.
 다만 동심이 세파에 시달려 혼탁해져가는 것이 안타깝지요.
 어린이에게 건강한 꿈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 이야기를 찾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시면, 채택된 이야기에는
 대학서점과 소책자, 소책자의 소책자의 교토를 드립니다.
 ●발행처: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우체국 사서함 47호
 ●인쇄: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우체국 사서함 47호
 ●인사: 편집위원/TEL. 730-9711

천문우주아카데미 총무 김병일

인재와 첨단기술의

 삼성

한반도 군축 왜 필요한가

군사대결구조 청산이 통일의 '첫걸음'

80년대 후반기 이후 진행되어온 군축의 기류는 90년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군축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군축의 이론을 설명하는 한편, 남북의 군사력 비교를 통해 군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남북의 군축제안이 나온 것을 정리하여 주한미군 철수 등 군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은 세계적 흐름인 군축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시켜 올바른 방향을 내오자는 의도로 쓰여 졌다. 독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편집자)

90년대는 군축의 시대이다. 80년대 후반의 신데렐라에 이제 군축의 시대를 열었다. 미국도 거대한 흐름을 거역하지 못한 채 군비감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한반도만이 이 흐름의 예외지역인 셈이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열망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군사적 대결구조의 청산이다. 남북한의 군축이야말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문제이다. 다행스럽게도 평화의 후진지역인 한반도에서도 최근들어 군축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군축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전망을 하고자 한다.

군비증가는 군비축소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정수준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며 무모한 군비경쟁을 방지하는 길이다. 남북한이 가던 길은 군축이다. 군비증가는 군사적 위협의 근원적 해결이 아닌 그 운영의 조절이므로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실제로 군비증가라는 이름으로 군축문제는 교묘하게 악용되어 왔다. 군축은 첫째로 전쟁을 방지하거나 그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데 기여하고 둘째, 전쟁을 막지 못했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셋째, 경제적 이유와 넷째, 도덕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강한 정치적 효용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으로는 필요성이 거의 절대적이다.

1. 군축의 이론

흔히들 군축을 군비축소(disarmament)와 군비통제(arms control)로 구분한다. 군비축소는 현존하는 군비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군비축소는 전쟁 가능성을 없애고 평화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군사력의 개발과 배치 그리고 사용의 증가에 관한 포괄적인 정치·군사적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군비축소는 군비경쟁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

2. 남북의 군사력

최근에 남북의 군사력에 대한 비교가 학계나 국회 등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한다. 군사력 비교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대전은 총력전이며 군사력으로 투입될 국가의 총자원에 대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사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군사정보에 대한 개방으로 군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연도	인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85년	2,090,000	42.5%	42.5%	42.5%	42.5%	42.5%	42.5%
21~430	62,000	3.0%	3.0%	3.0%	3.0%	3.0%	3.0%
1989년	2,090,000	42.5%	42.5%	42.5%	42.5%	42.5%	42.5%
210~1,25	70,000	3.3%	3.3%	3.3%	3.3%	3.3%	3.3%
1989년	490,000	23.5%	23.5%	23.5%	23.5%	23.5%	23.5%
210~5월말	70,000	3.3%	3.3%	3.3%	3.3%	3.3%	3.3%
1989년	490,000	23.5%	23.5%	23.5%	23.5%	23.5%	23.5%
3월~	70,000	3.3%	3.3%	3.3%	3.3%	3.3%	3.3%



△ 틱스피리트 훈련개요와 남한내 주한미군 해무기 배치도

한미 양국정부와 군부는 남·북한 군사비와 각각의 GNP와의 비율을 북측이 20%, 남측이 6%라고 하여 북이 군사적으로 압도적·우세에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북의 '남침위협설'을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남과 북의 GNP 대비가 5.5:1이라고 가정하면 남·북한 군사비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1.5배가 많다. 실제로 지난 3월2일 국회답변에서 이상훈 국방장관은 남한의 군사비가 규모면에서 지난 76년부터 북한을 앞섰기 시작해 89년에는 1.7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작년 국방비 총액이 외화표시로 90억달러에 이르러 북한의 52.8억달러의 1.7배가 되었다. 군사비를 1.7배나 쓰고 경제력이 5.5배라고 밝히면서도 남한의 군사력이 북의 65%의 수준밖에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군축이 주한미군 철수부터 후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국방비를 1.7배나 더 써

의 분위기 속에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연설회에서 군비축소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반도 군축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해오던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와 스탠포드대학 공동연구팀은 지난 2월9일 군축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정책보고서는 남한측 군축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우선 지상군에 한하여 하며 철수보완으로 93년까지 남북한이 군축협상을 벌여 미지상군 철수에 상응하는 북한측의 병력축소를 요구한 뒤, 2천년까지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대비책으로 연합사의 지휘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기존의 전지방어전략을 강화하며 통합군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외국군방안과 국제적 여건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냈다. 이 군축보고서에 나타난 몇가지 점들을 지적해보자. 첫째는 북한측의 병력축소를 유도하면서 도리어 남한을 전진방어전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철수가 남한내의 전쟁구조의 해소가 아닌 도리어 강화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해양해전력에 의한 지상군의 비동축, 세계적 분위기와 자국여론 등이 배경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진행된 주한미군 철수를 북의 병력감축과 한국군 증강으로 연결하는 데서 군축에 인하는 함정이 무엇인지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둘째는 모처럼 나온 남한측의 군축제안이 필연적으로 진행될 주한미군 철수의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배경을 고려해 볼때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함이 군축제안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추측가능하다. 어쨌든 군축문제가 중요한 관심거리로 부각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북한은 후진협정 이후 200억 이상

군비축소에 대한 제안을 하여 이론계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제안들의 핵심은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비핵·평화지대안 그리고 남·북의 군사력을 10만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축안은 80년대 후반들어서 더욱 구체화된다. 북한의 군축제안의 성격은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한 군사비 부담의 감소와 미·소 관계의 변화속에서 맞이하는 신데렐라와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 4. 군축방향 거듭 강조하거나 군축문제는 분단모순의 극복을 위한 정치·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한반도 군축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와 원칙을 밝히며 길을 마련한다. 첫째,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자기를 억지한다'는 식의 인식은 군축협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각 중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끊임없는 군비증가를 통해 전력증강을 시도하면서 '힘의 우위'를 과시하여 상대방이 군축협상에 임하게 될 것임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둘째, 고르비초프의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에 입각한 실질적인 전력감축으로서 신외국군축수를 취해야 한다. 실질적인 전력감축만큼 상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조치는 없다. 비정치적 차원에서 교섭을 통한 신뢰확보는 전력감축조치와 아울러 진행될 때 그 의미가 높다. 셋째, 군축협상은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길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군축협상이 민족의 재통일을 위한 협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군축협상을 이용한 일·북한, 한·소, 한·중의 우호통상조약 체결을 거론하는 것은 민족분열을 국제화할 뿐이다. 넷째, 병력의 축소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술공력의 위형성이 있는 공적용 병력의 우선적 감축이다. 기계계의 감축에서는 전술해무기의 철수가 가장 중요하다. 공적용 무기체계의 생산능력과 장대국로부터의 무기이전 계계를 근본적 군축을 위해서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불가침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선언이나 협상이남하는 미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하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확고한 정치와 제도의 마련이라는 시각에서 군축협상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여섯째, 상호 통보, 감시, 검증제도를 갖춘다. 김창수 <평화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경희대 사학과 북한답사 추진위 위원장장 요성권

분단으로 인한 편협한 학술활동을 극복하고, 나아가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기가 전국 대학 100여개에서 분출되고 있다. 모범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경희대 사학과 산하 '고구려 문화원' 유물유적 답사 및 공동세미나 개최를 위한 특별 위원회 위원장 요성권(사학·3)군을 만나 보았다. △저한테부터 답사를 준비해오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과 성원들은 분단이후, 단 한반도 걸치지 못했던 고구려 문화권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큼니다. 이번 고구려 문화권 고적답사는 기존에 가져왔던 연대 행사적 답사를 파급력 있고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통일적 사관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답사가 성사되면 그동안 북한에서 쌓아올린 역사학의 업적을 수용, 남한 역사학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정치적 의미는 없습니까? =3당 통일이라는 진보추진사업이 이루어진 후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의 방소, PACEX, 림팩훈련 남한 유엔단독가입등 분단 연구회, 군사요새와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방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학술답사를 위해 먼저, 과 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과 내에 있는 여러 학회에서 고구려 문화유적, 유물 등에 대한 세미나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간부들은 방북신청서의 의외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일반학생들을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학생들과 의식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서충원 통일운동의 전반적 기조인 1천과 방북동 전연방 자유왕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 있습니까? =현 국제정세는 세계적인 테러무드가 조성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동북아에도 이의 여과가 미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조는 저수적 교류운동을 벌이되, 시기별 예들들어 림팩 훈련등이 있을때에는 군축, 비핵지대화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리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현재, 경희대 사학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북신청에 대한 준비비로 방안들이 학술교류운동의 모범답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 특성과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 실정에 맞게 교류운동을 벌여 나갈때, 편협한 학술활동을 극복할 수 있고 통일에의 신념은 더 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형기자>

서울대 하영선 교수는 그의 저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서 남·북한 어느측도 군사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장하고 있지 못하여 이러한 추측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격을 위한 군사력은 방어를 위한 군사력보다 최소한 3배가 되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군사명제를 고려할 때에 남·북한 모두 공격에 충분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보고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3. 남·북의 군축제안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두가지 측면이 동전의 양면과같이 공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안 나토 체제'인 한미일 집단군사동맹체

한국군을 깊숙히 편입시키면서 한미안보관계의 역할과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역지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한국군을 증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북한과 군축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북방외교정책과 제도를 같이하여 '두개의 한국'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구상이다. 지난 2월8일 미상군 군사위에서 매트리 주한미군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국방비를 GNP와 대비하여 비율을 증가시켜는 유일한 나라는 남한측은 그동안 남·북한 군축에 임없이 국방비를 증강해온 이유로 남한측은 그동안 남·북한 군축에 대한 제안들은 제안을 해오지 못하다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신데렐라

4월 혁명 30주년기념 학술발표회

'4월혁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월혁명연구소의 주최로 '학술발표회'와 '전야제'가 연세대학교 4월혁명관에서 열린다. '학술발표회'는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사월혁명'을 주제로 오늘(18일) 오후 1시30분에서 오후6시까지 연세대학교 4월혁명관에서 개최된다. 사월혁명을 민족민주운동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나가는 현재의 변혁운동서 재해석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4월혁명 30주년을 맞아, 김근태(전민련 집행위원장), 박철민(전국노동

운동단체협의회 정책기획부장), 유초하(충북대교수), 정기영(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씨가 토론을 한다. '전야제'는 30주년을 맞이하는 사월혁명을 오늘의 민중적 시각에서 재해석해나가고 사월혁명에서 오늘에 이르는 민중운동의 역사를 사월혁명을 계기로 운동적 정서를 확산시켜 당면의 정세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를 분분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사월에서 통일'이란 주제 하에 오늘(18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4월혁명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전야제에서는 사월혁명30주년 선언문 낭독, 사월혁명사상시 낭독, 풍물·시·춤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한편 '수유리·19로소집배'는 19일 오후 12시 사월혁명세대

운동단체협의회 정책기획부장), 유초하(충북대교수), 정기영(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씨가 토론을 한다. '전야제'는 30주년을 맞이하는 사월혁명을 오늘의 민중적 시각에서 재해석해나가고 사월혁명에서 오늘에 이르는 민중운동의 역사를 사월혁명을 계기로 운동적 정서를 확산시켜 당면의 정세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를 분분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사월에서 통일'이란 주제 하에 오늘(18일) 오후 7시 연세대학교 4월혁명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전야제에서는 사월혁명30주년 선언문 낭독, 사월혁명사상시 낭독, 풍물·시·춤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한편 '수유리·19로소집배'는 19일 오후 12시 사월혁명세대

제민주단체 민주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묘소앞에서 사월혁명기념식이후 간단한 문화행사와 함께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기획강연회 90년대 민주사회를 위한 기획강연회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주최로 오늘(18일) 오후1시에서 5시까지 중앙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이범영(민정련의장)씨의 '계약 운동권의 대응전략', 이복희(노동운동가)씨의 '정치경제 개편과 노동운동'에 대한 강연이 있다.

지금 몇 시?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視角을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視角으로 다시보면, 동양시멘트는 분명 이제까지의 동양시멘트가 아닙니다. 처음 출발은 시멘트산업, 지금은 품질제일의 '매직세프'로 가스기기 분야에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단단한 이미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동양시멘트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는 가전산업— 이제, 고품위 가전 브랜드 '동양메직'으로 가전제품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視角으로 조명해 볼 때, 동양시멘트는 젊은 기업, 도전하는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양시멘트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중립·동양생명보험·오리온프리트레이·동양유업·동양투자자문·동양창업투자·동양경제연구소·서남재단



동대신문의 어제... 그리고 오늘

동대신문 역사

△1947년 가을 문과에 제 학생이던 朴宗壽(鄭益龍)등 4명이 주동이 되어 타블로이드4면 '동국일보'를 창간해 동대신문의 효시가 되었으나 필화로 파문을 일으켜 폐부되기도 못한 채 발간 중단.

△1950년 4월15일 당시 중앙학생회 회장이었던 申國柱와 李外淵, 朴宗壽, 李鍾漢등 신문동호인들이 유산된 동국일보의 뒤를 이어 대판4면의 '동대신문' 창간호를 발간.

△1950년 6월 2호 조판중 6.25발발로 또다시 중단.

△1952년 6월 부산파난지에서 李崇壽(李壽)의 지도 아래 타블로이드4면 '동대신문' 2호 속간. 당시 기사에서 학교당국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학생들의 글이 많았기 때문에 배부금지 당함.

△1953년 11월 환도후 3호부터 타블로이드판 '동대일보' 속간.

△1954년 6월20일 '공보실'로부터 정기간행물 291호 허가받음.

△1955년 2월20일 제19호부터 배대판4면으로 중판대행. 7월7일 '동대신문'을 제호를 바꿈. 9월5일 '동대시보'로 제호 변경. 10월11일 제3중우편물로 인가받음.

△1959년 3월16일 지령 100호 발간. 10월 구내인쇄소에서 신문제작 시작.

△1960년 7월1일 공보부에 등록을 변경, 등록번호 C-19호로 허가. 10월 주간제를 두고 초대주간에 鄭태웅(鄭泰雄) 취임.

△1961년 7월5일 호외제1호 발간. 제목은 '개성가는 운동장의 꿈'.

△1962년 7월6일 '동대신문'으로 제호변경. 7월12일 지령 200호 발간. 7월21일 충남 賈誼島와 자매결연 맺음.

△1963년 3월 '동대신문사' 학술상과 '전국고교교수 문학콩쿠르'를 제정, 오늘에 이룸.

△1964년 1월1일 공보부에

등록을 변경, 등록번호 다-10호로 허가. 3월 필화사건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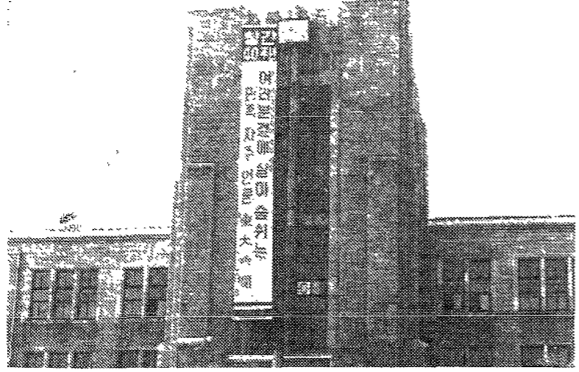
△1965년 6월 영문학회에 의해 창간된 영자신문 'THE DONGGUK POST'를 자매지로 인수 발행하여 오늘에 이룸 (90년 4월1일 현재 지령 238호). 9월17일 지령 300호 발간.

△1968년 9월19일 지령 400호 발간.

△1971년 10월4일 지령 500호 발간.

일보편집국장), '70년대 대학신문의 반성'—劉載天(사강대교수), '80년대 대학신문 방향'—李相國(연세대교수), '민주화 시대의 대학언론'—韓相範(본교법대교수)등을 주제로 초청 강연회 개최. 8월 동대신문 학술상 수상작품을 모아 '대학의 지성'을 발행. 11월 본사가 꾸준히 모아온 사진제료를 중심으로 '제1회 보도사진전' 개최.

△1981년 9월15일 지령 800호 발간.



여러 차례 필화 사건 겪어 '매체혁신' 등 거듭나기 다짐

△1972년 2월 사무실을 본관 1층에서 현재의 학생회관으로 이전.

△1975년 1월7일 지령 600호 발간. 4월15일 본지 창간 25주년을 기념하여 동대신문은 설립 '대학의 이상'을 발행. 미국의 저명언론인 벤자민 프랭클린을 초빙한 가운데 코리안 나호텔에서 자축연을 가짐.

△1978년 3월7일 지령 700호 발간.

△1979년 3월 총무부 편집국장직에 승격.

△1980년 4월 창간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회변동과 신문의 역할'—宋建勳(전종아

를 발행.

△1988년 8월 지령 1000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컬럼선집 '달라진 천강에' 및 동대신문을 해낸 제1권(1-181호 수록)을 발행. 9월 국내의 대학신문전 시회개회 및 '제5회 보도사진전' 개최. 전국고교신문·교정신문대회개회. 9월13일 지령 1000호 발행.

△1989년 3월 제1012(3월1일)호부터 전면가쓰기 체제변경. 9월 제13대 주간이 朴宗壽(법학)교수(현재).

△1990년 4월 창간40주년을 맞아 초청강연회 및 보도사진제작 예정.

- 4월15일자로 창간40주년을 맞
- 는 동대신문은 동국역사와 함께
- 해온 살아있는 중언입니다. 이제
- 까지 밝혀지 못했던 본지의 구성
- 및 지면성격을 공개하고 신문을
- 작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 불어 민족자주언론의 기틀을 마
- 려하기 위한 몸부림도 전합니다. ○..... (편집자)

호 발간. 기념사업으로 '제3회 보도사진전'과 함께 '대학의 사랑과 현실참여' '대학신문의 역할과 사명' '언론과 정치'등을 주제로 강연회개회.

△1985년 3월 경주대 '東大新聞' 환관식.

△1986년 2월 '파소헌법철 폐기'로 필화. 9월 '동대신문사 학술상' 모집분야 가운데 창작문학부분을 독립시켜 전국대학 대상의 '동대문학상'으로 제정, 오늘에 이룸. 10월 개교 80주년기념교사사진-교내간행물전시회 및 '제4회 보도사진전'을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서 가짐. 11월 '학생의 날' 기념시로 필화. 12월 '사건으로 본 동국대학교 80년'

각면의 성격과 실리는 기사

집필은 편집회의과정에서 학생 기자가 결정해 논설위원(본교 재적교수로 구성)이나 부장단에서 하게 됩니다.

한편 시사논단은 현재 대두하는 사회문제를 저명인사의 시각을 통해 바라본 것으로 개인의 의견을 통한 '민족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동아기자석은 독자들의 직접참여를 바라며 열아는 지면으로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의 전 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동대신문에 알릴수 있는 단입니다. 또한 동국대명령은 기성적 성격

적으로 달성해야할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루어지는 대상은 마장노련이나 울산지역의 노조활동 및 탐암사태와 함께 지난해 말교의 역량을 보여준 교원노조의 물론 각분야에서 투쟁하는 민중세력으로 인터넷, 밀착취재, 현장탐방, 르포등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특히 현시점에서 혁명세력으로 대두되는 노동자들이 겪는 단합과 임부투쟁은 학생대중이 함께 고민해야할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6면—생활문화면입니다. 우리들의 삶속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문제를 소재로 이데이션 소개와 비평을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바로 앉시다'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등이 게재되고 있으며, 동아광장은 독자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광장은 광고개제부터 문화회·학우회·동아리·소식·문화단·신문의 개시판까지 독자들에게 알린다는 취지입니다. 7면—학내외기사를 싣고 특집기사에 대해서는 기획 또는 해설기사를 게재합니다. 기획 해설기사는 상시적으로 실리며 학생회활동, 학교행정, 교수회 동정 및 동국관련 제기사의 심도깊은 관찰·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면—교양문화면입니다. 독자대중들의 문화의식교양을 목적으로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를 소개·분석하고 이데이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영화평·연극평 및 수필등을 게재해 문화에 대한 조부적 접근을 꾀합니다. 신문, TV, 라디오 등 매체에 대한 비평을 통해 올바른 매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양문화면 역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문화-학술등 정보다양 독자 공금증 해소에 주력

사, 부Top기사, 각 단별기사로 구분하며, 한주의 사건중 학내의 구분없이 가장 비중있고 독자가 알아야할 내용이 담겨지며 기사의 가치는 취재부방이 정합니다.

2면—여론수렴면으로서 본사의 주의주장을 피력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실습니다. 사실은 한주의 이슈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있는 노동현장을 찾아 그들의 삶을 직접 비추어주고 현실문제를 통해 우리가 궁극

과 폭로의 성격을 함께 갖는 공간입니다.

3면—학술정보 및 학생운동 관련기회면입니다. 기존에 나타난 오류로써 딱딱한 논문이론의 틀에서 탈피해 현실적이고 시사적인 글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4면—민중운동관련면입니다. 노동행방의 그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현장을 찾아 그들의 삶을 직접 비추어주고 현실문제를 통해 우리가 궁극

5면—반미지주화·조국통일 면입니다. 현재 지령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틱스피리트 혼란 및 제3세계 민족민주투쟁의 탄압현실을 적나라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분단된 조국의 하나됨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반미와 통일의 연관성을 제정립하고 아까지 확고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양문화면 역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정규사업인 4·19기념학생 논문상,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 동대신문학술상, 동대문학상등 80년대학생운동상을 담아 여러

일시적인 한계에서 탈피해 독자들의 바램을 토대로 지속적 으로 실시하며, 보도사진첩은 80년대학생운동상을 담아 여러

동대신문은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면입니다

본지의 여러 난은 독자들의 투고로 채워지고 있으며, 다른 지면역시 편집회의에서 채택된 신문에 게재됩니다. 동아기

수필 시, 독후감을 비롯한 논문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투고를 원하는 독자들은 언제나 본사로 찾아오거나 문의

바랍니다. 몇몇 기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문이 아닌 독자자신에 의해 제작된 신문을 받아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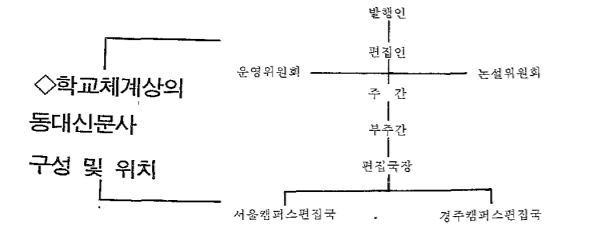
몇몇 기자 아닌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나갑니다

지적, 동아광장은 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위해 할때면 지면이며 문화면을 비롯한 각면에서도 학생대중의

동대신문사는 이렇게 짜여있습니다.

현 신문사는 학교계상 부속기관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발행인 겸 사장으로는 총장인, 편집인에는 학생처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으며, 학교측의 실무대표로 주간교수가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한편 논설위원은 사실의 집필이나 신문사운영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학생편집장은 주간교수의 동의하에 신문제작의 O-K권을



다. 한편 신문제작의 실무지도자로 편집국장이 있으며 주간교수와 함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기자구성은 편집장과 각 부 부장이 있으며, 그밖에 담당편집, 정기자, 수습기사를 두

고 있습니다. 한편 논설위원은 사실의 집필이나 신문사운영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학생편집장은 주간교수의 동의하에 신문제작의 O-K권을

동대신문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선상에서 대학신문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은 청년학생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 데서 부터 인니

은 대학신문인들의 발전역사와 운동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매워진 것으로 기존의 몇몇 선진행동가중심의 운동에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87년 이후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청년학생의 지위와 역할은 선봉전위대역 역할, 교향지적인 생활, 사상전파로서의 역할을 갖습니다. 여기서 변혁사회정년대학에게 역할과 임무를 옮겨 전진, 지도하여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 대학신문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선배기자들은 그동안 아카데미즘과 지리리즘, 신도성과 대중성을 고민하고 좌우편향적오류의 시정작업을 거듭했다가 비로소 89년에 들어서 전국대학신문에서는 '매체혁신'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에 동대신문을 비롯한 대학신문이 대중들로부터 외면

을 받았던 이유는 기자주체들의 잘못된 태도관, 저급함으로 인한 주권주의적 오류때문이었습니

바로 이런 오류를 넘어 한국 사회변혁운동에 올바르게 복무하기 위한 방도로 '매체혁신'을 제기하고 이에 편승해 언론전사, 선전일꾼이 되기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3대혁신사업은 사상학습과 실무교양을 통해 이땅 변혁운동에 복무하게 될 선전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품성, 자질을 배양하는 주체혁신을 바탕으로 일 중심에서 벗어나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적성을 지양하고 올바른 사업작업을 정립해 신문사의 틀을 갖추기 위한 조직혁신, 이들의 현실적인 실천결과로서 나타나는 지면혁신등입니다. 독자들의 선전선동을 위

해 필수적인 이 세가지 혁신사업은 독자적이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 결합을 한상에서 지금이순간도 동대신문내에서 부단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제되었듯이 위의 혁신사업들은 대중들을 직접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현장을 이 루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동대신문은 전체학원에 복무하는 부문제일운동의 한지류로서 학생운동에서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고결분부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사후론 계열부문강화에서부터 좁게는 동아내의 여론수렴 선전선동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대신문의 노력은 신문-기자들의 자족적인 사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학인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칼럼을 보십시오

금주일언-1면에 게재되며 불교성전의 문구를 통해 견학이념의 구현, 불교의 진리를 소개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알리고 있습니다. 보리수-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인격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불교계 인사들

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자 합니다. 즉 불교교리를 현실에 적용-해석하는 것으로 崔昌勳(李然芝) 鄭之鵬(鄭之鵬)이 집필하고 있습니다. 동아목-4면에 실리는 2학년기자들의 현장칼럼으로 취재후기 또는 현장기사의 성격

보리수와 메아리 등은 진학이념구현과 사회현실비판등의 청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해 학생대중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피력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메아리-8면에 실리는 부장단의 칼럼입니다. 형식과 가치를 내리고도 정론적필의 필치 아래 독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대해 학생대중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피력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해 학생대중에게 개인적인 사사를 피력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메아리-8면에 실리는 부장단의 칼럼입니다. 형식과 가치를 내리고도 정론적필의 필치 아래 독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한부의 신문이 나오기까지

신문을 제작하기 2주전 정기자들은 본사회의실에서 편집회의를 엽니다. 편집회의는 학생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과정은 부서별-취재부, 논설부, 사회부, 문화부-회의를 거친후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점검받는 것입니다.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아이템은 각담당부서에서 2주전까지 기자 취재를 하거나 담당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특히 취재부의 경우에는 매주 3차례의 기사파견을 통해 학내외의 제반상황 및 기잡기사를 취재, 수집하고, 기자들은 출입처별 주간~3회 방문을 통해 사진, 사교를 알아봅니다.

현장취재나 르포, 취재등을 통해 작성된 기사는 매주 토요일 담당부서들이 내용 및 형식을 검토한 후 미흡한 내용이거나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작업을 갖습니다.

월요일 오후5시 최종마감된 기사들은 현재 신문제작을 하고 있는 매일인쇄로 송고되며, 월요일 오후 송고되지 못한 기사들은 화요일 오전에 재송고됩니다.

기사가 신문지면상에서 독자들이 보기 좋게 배열되는 편집은 담당편집기자들의 의해 짜여

지며 기사의 중요성, 시기성, 내용성 및 지면에서의 균형등을 고려해 작성됩니다. 화요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신문제작과정은 송고된 원고의 교정을 본부 편집형태에 따라 짜여집니다. 제작과정에서 역할분담은 수습기자들이 교정, 정기자 및 담당편집장이 조반을 하며, 부장은 담당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와 내용편집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한편 편집장은 제작된 신문의 전체 O-K권을 가지며, 이때 주간교수 및 편집국장의 지도·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완료된 신문은 다음날인 수요일 오전 10시경 본사기자들에 의해 동국관, 해와관, 교수회관 도서관, 명진관, 학원관 학생회관등에 배포됩니다.

신문이 제작돼 배포된 당일 오후 5시부터 전체기사는 제작된 신문에 대해 편집반성을 갖습니다. 편집반성은 신문자체에서 나타난 오자, 오보등의 문제점과 제작상의 오류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기자주체들의 일주일간 생활반성을 필수로 합니다. 이는 기자상호간의 동지적결합정도, 생활태도, 취재의 내용정도, 성실성, 책임감을 평가받는 자리가 됩니다.



기획특집 '칼없는 강도짓' 전세값 폭등을 분석한다

조선시대 '보리고개'가 대한민국의 '전세고개'로

'집놓고 돈먹기' 식 전세폭등... 내집 마련꿈 날아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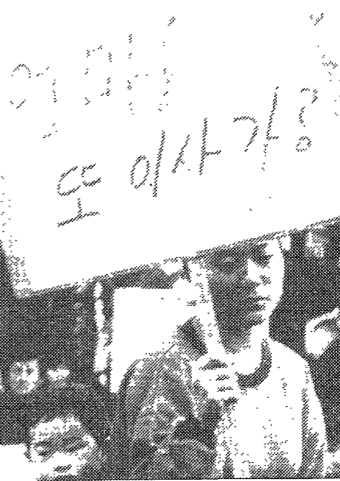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이웃집은 전세에 올랐지만, 내집은 더 올랐으니, 그나마 나은 편이다. 보리고개는 칼없는 강도짓이다. (자료사진: 한겨레신문)

현장스케치 언론장악음모 노골화된 KBS를 찾아

"사장이 왔는데 앉아서 있어"

서사장, 시종일관 반말... 언론관 드러내

"나는 방송을 잘 몰라. 방송을 잘 아는 여러분이 잘 도와줘야 돼." "사장이 왔으니 데도 앉아서 있어" 지난 12일 언론사장 처음으로 방송사에 공권력이 투입된 KBS의 서기원신임사장의 취임사 중 일부이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자 그마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승자(39)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3월에 바뀐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없던 돈으로 건물을 보수해 가게를 운영했는데 바뀐 주인이 시설보수비도 안주고 내쫓으려 한다"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남매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근심스럽다"고 말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n Language Textbook 100' (英韓 대역문고 100권) featuring a list of authors and titles, and a separate advertisement for 'Si-sa ECC English Conversation Center' with details on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

<2> 80년대 화제작가 '신학철'

신학철은 80년대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이다. 그가 1982년 9월 서울미술관 주최로 첫 개인전에 선보인 '한국근대사' 연작은 한국의 역사와 현실적인 삶을 정면으로 다루어내어 70년대식 단일미학의 전통에 쐐기를 박은 하나의 '폭탄적인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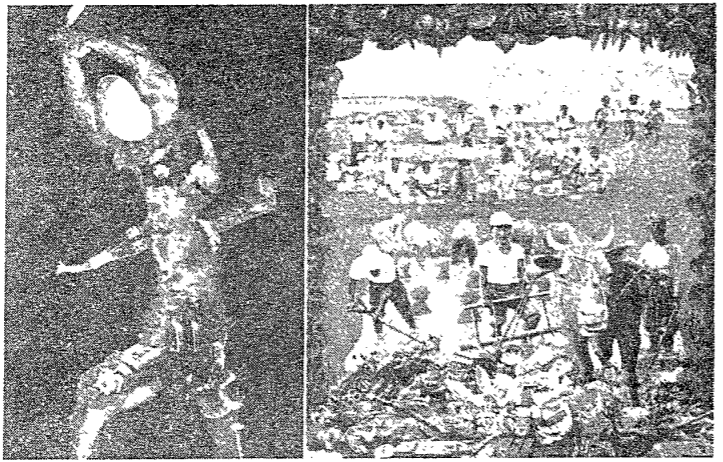
그의 작품의 특징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등어반복체의 형식실험과는 달리 풍경이 무척이나 수평적인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그의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라는 점과 아울러 작품수가 그리 많지 않음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신학철은 '전위예술에의 강한 의식'을 전제로 한 70년대의 실험미술에서 '인간성 회복'의 강한 열정을 전제로 한 80년대의 형식미술쪽으로 전향한 작가이다.

'사화화된 논리'일 뿐 전혀 감동이 아닌 실험내용을 학습해 오는 동안 그는 끊임없는 회의와 자기부정의 '싸움'을 겪어야 했고, '논리와 감동의 일치'를 추구한 끝에 마침내 '논리' 아닌 '감동으로서의 형식'을 그의 작업으로 간략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데뷔무대였던 지난 82년 개인전에는 79년까지의 오브제작업, 80년 한해동안의 사진 콜라주작업, 그리고 81년과 82년의 유화작업을 망라해서 모두 32점의 작품이 전시되었



◊ 왼쪽 사진: 82년작 '상황-82', 8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기형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
 ◊ 오른쪽 사진: 87년작 '모내기', 작품의 뒷배경이 북한 '민중대'와 유사하다는 구설로 신학철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혐의)으로 구속했던 작품.

호소력과 실제감 지닌 형상으로 공감 얻어

그러나 이 전시를 통해서 정작 보여주고자 했던 작품은 다름 아닌 '한국근대사시리즈' 유화작품 11점이었다. 그의 작품에는 한결같이 기이한 미가 느껴진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소력과 실제감을 지닌 형상적 인식의 토대 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82년에 팔라주 작업을 통해 완성한 '상황-82'란 작품을 보면 너무도 감격해 차가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게 첫 인상이다. 그렇지만 '별이 울컥거 두손에 든 식칼' '코끼리가 선연한 또 하나의 팔, 붉게 칠한 입술의 자리, 다

리에 들출된 또 하나의 손' 가늘게 가는 기형적인 발'은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인식한 결과인 것이다.

민미술 대표위원, 미교연 고문을 거쳐면서 인식이 확대된 신학철은 '88올림픽 미술제'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는 등 몇몇 의식있는 작가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신학철은 명성 꽤나 있는 80년대 화가들이 자신이 민중미술작가로 취급되는 사실에 불쾌해하고 반대하는 것에 반해 자신을 민중미술작가로 당당히 내어 보인다. 그는 자신

이 민중미술작가임을 자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민중미술의 긍정적인 승려까지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미술에 대한 그의 희망과 믿음은 지난 87년, 88년에 완성된 '모내기'와 '한국현대사 87-1'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단월조랑, 계곡주의 근대, 핵무기, 양떼, 코끼리, E.T, 문화, 도색명명, 탐보이메로, 기, 허수아비인, 쿠데타정권, 매관매민.' 따위를 한우의 씨레기로 내뿜어치는 농정일치의 '진부적형상'과 수확의 기쁨을 춤추며 노래하는 '건설적형

(문화부)

우리문화찾기, 나의 24시간에서 부터

월까지 총 7회의 '우리웃-생활문화탐색'을 가졌으며 그의 대학생활문화연구 및 실천사업, 그리고 지역단체나 모임에서 생활문화교육 및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 연구소에서 큰충거로 하여 피어나고 있는 생활문화운동은 '일거리 문화' '머거리 문화' '살거리 문화' '공해문제' 등에 관한 연구이다.

생활문화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바로 입고 먹고

말함에 있어 그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의·식·주·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삶 밑바닥 구조적까지 파고든 계급주의 의태문화에서 탈피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인 것이다.

"청바지와 티셔츠에 나이기 운동화를 신고서 비 계급주의는 물러가라고 외친다면 이보다 더 이례비판적인 일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라고 한 회원은 말한다.

알려주는 전담들의 대응 이상 의 것이 아니라 저의 순수이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뒷받침에 관란을 겪고 있다.

또한 아적인 전문성을 담보하거나 연구원 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에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 생활문화운동은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며



의·식·주로 시작해 제국주의 문화 탈피해야

일하는 즉, 일 놀이, 부쟁이라든, 이런 생활의 기본에서 부터 '우리것'을 찾자는 운동이 생활문화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적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의 일거리, 우리의 머거리, 우리의 살거리, 우리의 공해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우리의 것을

바로 생활문화운동은 우리가 지나쳐 버리기 쉬운 사소한 일에서 부터 시작, 결국, 전체운동의 부분운동이며 역할분담인 것이다.

한편, 이런 생활문화운동이 갖는 한계성과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

우하나 결치는 것이 생활문화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오이나 생활문화운동은 생활문화운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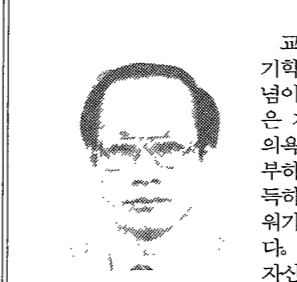
각계에서 좋은 호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다.

많은 대학에서 생활문화연구회들을 만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소를 찾는 사람들이 어필하는 10여명에 이르고 있어 소장 이기연씨는 매일같이 연구소를 찾는 아들과 토론을 한다.

달하나 수기에 자기 학습력

洪錫強 (사범대교수·수리통계학)



교육학에서 자기 학습력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자수적인 학습의욕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스스로 배워가는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학습목표와 학습계획을 세워 적절한 방법으로 의해서 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스스로 약한 자기계획에 따라 자기를 교육하는 힘, 즉 끊임없는 학습의욕과 의지의 형성 및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그리고 미래학문연구에서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며 주체적으로 학습해나가는 태도와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교수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으로 학습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기학습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자 개인의 학력을 고양시키고 그들속에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자전적 성장을 신화하여 의적인 간섭이나 강제성을 배격하고 페스 탈락도 교사가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일은 학생들의 자발적활동을 열여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 학습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한 예로 예기해 보자.

20세기의 최고지성의 하나인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러셀은 영국귀족출신으로

로 3살때 부모모두가 명사하여 고독한 유년시절때부터 어려서부터 열매편에 사로잡혀있었으나 11세때 처음으로 유크르트의 '기하학원본'을 배우면서부터 수많은 수학을 알기 위하여 더욱더 살아야겠다고 생각되어 자살의 유혹을 떨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후 그는 켈브리지대학에 진학하여 수학을 전공하게 되어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 특별 학생으로 배려되었으나 졸업시험준비로 수많은 무미건조한 수학문제를 푸는 훈련만을 하여 수학의 생명인 논리적 이론적은 전혀 못하게 됐다 한다. 그래서 졸업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모든 수학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자수적인 학습에서 논하는 배우는 힘, 문제해결력, 학습의욕, 학습실천력도 상동하나 자수적인 학습이 목표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학습의욕과 의지, 학습방법의 습득, 삶의 방법탐구의 세 가지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요약하면 자기계획에 따라 자기를 교육하는 힘, 즉 끊임없는 학습의욕과 의지의 형성 및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그리고 미래학문연구에서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며 주체적으로 학습해나가는 태도와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교수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율적으로 학습을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기학습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자 개인의 학력을 고양시키고 그들속에 내재하고 있는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자전적 성장을 신화하여 의적인 간섭이나 강제성을 배격하고 페스 탈락도 교사가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일은 학생들의 자발적활동을 열여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 학습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한 예로 예기해 보자.

20세기의 최고지성의 하나인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러셀은 영국귀족출신으로

우리글 바로 압시다

입으로 말했을 때 그 뜻을 알아듣기 힘든 한자말

입으로 말했을 때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한자말이 많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와 방송 등 상대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고 들어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런 매일 반복되는 한자말을 쓰지 말고 순수한 우리말을 써야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다.

◊민중미술의 의의와 방향
 의의→뜻
 방향→흐름의 반복이므로 소리대기와 알아듣기가 어려움
 ◊의의에 맞지 않는 내용
 시의→예
 초로의 K씨가
 초로의→눈이 촉에 들기 시작한
 ◊필을 놓았습니다.
 필을→붓을, 펜을, 연필을
 ◊당국은 기히 발표한

기하→이미
 ◊1950년 7월 동안 발발
 발발→일어난
 ◊死地에서의 생활
 死地→죽음의 땅
 생활→살아 있음
 ◊에서의 '의'를 없애야 함
 ◊수상하다
 상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모두 수상이나 '상을 주다' '상을 받다'로 쓰면 쉽고 분명해진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함.
 우를→어리석음을.
 ◊세 아양은 국민을 위해 공조해야
 공조→함께 도와야
 ◊폐업 중용자 못했소?
 중용자→부유한 사람
 ◊개구의 여지가 없었다.
 개구→말할, 입을 열.
 ◊요는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요즘은 전전과 똑같이
 전전→전쟁 전.
 ◊춘기 노동 투쟁
 춘기→봄철.

동국대학교 개교84주년 · 동대신문 창간 40주년 기념

제28회 전국 고교생백일장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전국 남녀 고교 문화도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문화의 새색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8회 전국 고교생 문학 콩쿠르를 개최합니다.

특히 우수한 입상자에게 본교 입학후 장학금이 지급되는 가장 권위 있고 전통있는 이 향연에 고교 문화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작품종목
 (가) 시·시조: 2~3편
 (나) 소설: 50매 내외(200자 원고지)
 (다) 수필: 15매 내외(200자 원고지)

■응모요령
 학교장(문예반 지도교사)이 추천한 작품을 본사에 제출.
 ■시상
 (가) 각 종목별로 장원 1편, 우수작 2편,佳作2~3편을 시상함.
 (나) 1차 예선(원고심사)입선자에게 상장을 수여함.

■장학금 지급
 (가) 각 종목별 장원입상자(1등)가 본교 어문학계열에 입학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함.
 (나) 각 종목별 우수작 입상자(2등)가 본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1년간 수업료 면액을 면제함.
 (다) 재학중 분단에 중단하거나 문예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장장학금, 문예장학금 등을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음.

■작품제출 기간: 1990년 4월 30일~5월 7일
 ■작품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26(우편번호 100-715)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귀중
 1990년 3월 일

동대신문사

행정-기술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근무지	응모 자격
행정직	서울,경주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1960년 5월1일이후 출생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1960년5월1일이후 출생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입상병리사(해부병리분야)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 1년 이상인 자.
기술직	경주	

2. 모집인원: 각직 약간명
 3. 전형방법: 필기시험(영어 논문 상식), 면접.
 4. 제출서류: 가.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다.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라. 자격증 사본(기술직)1부
 마. 원호대상자 보존증명서 1부

5. 예비소집: '90.4.26. 09:30 동국관 L301
 6. 시험일자: '90.4.26.
 7. 시험장소: 서울캠퍼스 교사강
 8. 지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0.4.19.~4.25. 오후5시까지

9.원서접수처: 서울캠퍼스 총무과 및 경주캠퍼스 총무과(우송된 서류는 접수지 않음)
 ※원서 접수에 희망 근무지를 붉은 글씨로 표기할 것.
 ※전화문의의 서울캠퍼스 267-8131-9(교)총무과
 경주캠퍼스(0561)2-0131-5(교)총무과
 1990. 4.

동국대학교

동약廣場

■아의 연동원 행사
 본교 불교도연동원에서는 연동원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아의연동원 행사를 실시 하니 많은 학생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제: 4월17일~26일(오후1시~7시)
 어디서: 다량관 앞

■양정 동문회
 소수명 열여치고 개미같이 모여서 아쉬워 갈 궁리나 한번 해봅시다.
 연제: 4월20일 오후5시
 어디서: 다량관 앞

■서울민중연합 민족학교 수강생모집
 서울민중연합(서민련)민족학교가 그간 어려운 여건과 탄압속에서도 굳건하게 밀고 일어선 13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다시금 14기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는 변혁운동과 정당운동이라는 제하에 특집으로 4월24일부터 6월15일까지 강의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36-3282, 739-0751로 연락하십시오.

동약광장은 교수, 학생, 직원에 이르기 까지 전통학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저희 동대신문 동약광장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광고개제 문의는 서울·경주캠퍼스 동대신문사 문화부로 직접 찾아 오십시오.
 ◇전화-서울: (직)267-8577 (구내)2194
 경주: (직)41-4132 (구내)237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힘을 사랑하는 후배가—

학자투 깃발아래 하나됨을 결의

대중화·공개화로 민주적 학생회 건설 제22대 총학 출범식...민자당분쇄와 노학연대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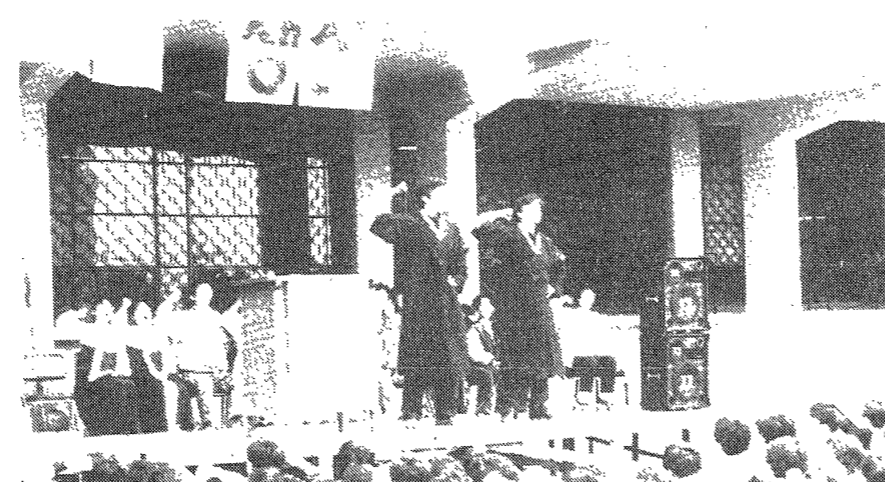
‘제22대총학생회 및 제6대 총여학생회 출범식과 상반기투쟁선포식’이 지난17일 오후1시 학생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출범식 1부에서는 출범식의 의의, 축사, 운위 및 집행부소개, 총·부회장 및 여총회장인사, 선서 및 깃발증정 순으로 열렸다. 2부에서는 정치투쟁위원회 간담회와 학자투위원장인사, 90년 학자투-정투위의 상반기투쟁선포식 조사를 발표로 진행됐다.

기획부장 한중서(전기공학4)군의 사회로 열린 1부에서는 출범식의의를 문과대학학생회장 김경환(사학4)군이 나와 “민중의 정치개혁에 학생회와 함께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역설했고 투쟁결의를 당부하는 대학원학생회 부회장이미애양의 축사가 있었다. 이

어총학생회장 권오철(화학4)군은 인사말을 통해 “민중의 대의에 입각한 사업내용과 실천성을 담보할것이며 사업의 대중화와 공개화로 민주적 학생회 건설”을 약속했다. 또 총여학생회장김윤향(선학4)양은 “여성해방투쟁부터 시작하자”고 역설하며 구속학우연회, 모금운동, 폐물수거를 제안했다. 2부에서는 문과대학학생회 김경환(사학4)군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학자투위원장 박정규(국문4)군과 사회부장 김성구(정외4)군이 함께 나와 재단혁신, 민중추대, 사립학교법철폐가 90년 학자투기초임을 밝히고 반민자당분쇄와 노학연대를 정투기초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제22대 총학생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총무부장=임기범(법학4) △학술부장=박상우(정외4)



△문화부장=박정규(경영3) △사회부장=김성구(정외4) △연대사업부장=전필원(야간·산업공4) △학자투위원장=박정규(국문4) △학생복지위원장=김중우(야간·회계3) △중앙교과위원장=박중면(야간·경제3) △기획부장=한중서(전기공4)

제4기 전대협 정기총회 개최 반미 자주화·반파쇼 민주화투쟁 결의

제4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정기총회가 지난 10, 11일 양일간 전대협 산하 1백71개 대학중 1백17개 대학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첫날인 10일 반미 자주화투쟁, 자주중립운동, 반파쇼 민주화투쟁 등 90년 투쟁노선을 결의하고 이를 실천 11일에는 송강석(전남대)

의장선출 및 의장단, 중앙집행간부인준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했다.

이번 총회 첫날의 투쟁노선 결의에서는 이미 중앙집행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투쟁총노선외에 서울대등 일부대학 대의원들의 노학연대와 반민자당분쇄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이전서’를 제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편 이번 총회를 사수하기 위해 경희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학생 1천여명은 16개 소대의 사수대를 조직, 대응했으나 다행히 경찰과의 무력충돌은 없었다.

등록금 투쟁 결의대회 1학년 자치협의외 출범

‘등록금 투쟁승리를 위한 1만대학결의대회 및 1학년자치협

의회 출범식’이 지난11일 오후 1시 학생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경상대학학생회장 강용원(무역4)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부총학생회장 이진환(경영4)군은 “6개항 사수와 재단혁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4월결산보고에 나선 문과대학학생회장 김경환(사학4)군은 “근본적인 문제인 재단인입금확보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한 1학년 자치협의외는 등록금의 부당인상분 환부를 학자투위원회와 연계투쟁하겠다고 밝혔다.

4월 들어 무차별 구속 잇달아 이상봉군등 본교생 6명 불법 연행

본교 정석영(국문3)군등 6명의 학생이 화염병 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 5, 6일 양일간 불법연행, 구속되었다.

이전에 구속된 이상봉(정의3)군은 지난 5일 동료학우의 해 집에서 나오는 도중에, 해운(사학3)군은 집에서 잠자던 중에 각각 연행되어 총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처럼 연행이 예전처럼 시위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경찰이 집근처에서 잠복근무중에 화염병처벌법위반으로 연행함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해당

과학생회 및 제22대 총학생회는 편회·편지쓰기와 모금운동 등 전개하고 지난 9일 도서관앞에서 대총집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투쟁방향을 결의했다. 불법연행 구속된 학생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시영(인도철학3) △정석영(국문3) △한장철(국문3) △이승근(사학3) △최은용(사학3) △이상봉(정의3)

한편 ‘구속동지구를 및 민자당분쇄를 위한 반동약 결의대회’가 지난 9일 오후 1시 학생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문과대학학생회장 김경환(사학4)군의 사회로 열린 이날 대회는 총학생회장인사말, 불법연행에 대한 총학입장, 파·단대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학생회장 권오철(화학4)군은 인사말을 통해 “학원단합과 민중단합에 맞서 민자당분쇄에 민중과 연대를 싸울 것”을 다짐 했으며, 부총학생회장 이진환(경영4)군은 불법연행 구속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발표를 통해 “학우들의 연행은 학원에 국한된 게 아니며 민자당분쇄투쟁시 전노협·노동자계층에 대한 전면적 단합이 가속화됐다”고 밝혀 전면적 연대와 노학동맹을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지지 교수대의원회 ‘직선총장 의지 변함 없어

서울캠퍼스 교수회는 개악된 사립학교법과 관련, 지난 3일 오후4시30분 교수회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갖고 국회 사립학교법통과를 안전으로 2시간 여에 걸친 논의를 가졌다.

金翊奎교수회장권대행등 1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전국사립학교 교수협의회 연례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과 자금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것에 대해 “본교교수회가 전교협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교수회의명의로 참가하

는 것은 곤란하며 평균수명의 회에서 서명운동에 참가할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총장선출과 관련, 대의원들은 “지난 총장선거선출시 교수회는 교수들에 의한 직선총장선출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이후 교수 직선총장 선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임금 협상 최종 타결 6차례 협상...호봉체계 재조정도

5차례에 걸쳐 논의됐던 90년도 직인노조임금협상이 지난6일 오후2시 교육대학원강실에서 개최된 6차협상에서 매듭지어졌다.

申國柱총장사리 및 韓勳善신임기획조정실장, 李錫培노조위원장등 학교·직원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공식조인된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기분급은 89년 대비 9.8%와 본봉 2만원을 일괄 인상할것 △기능직에대한 근로보조비를 폐지하고, 급양

보조비를 3만원으로 인상할것 △호봉체계를 재조정 할것 등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협상을 시작으로 20여일동안 진행된 이번 임금협상은 3차례에 걸친 기획조정실장의 경질로 협상의 어려움을 감안, 단체협약내용 중 임금협정서만 체결하게된 것이다.

한편 임금협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협약사항은 5월초순부터 협상에 들어가게된다.

정의과 학생총회

‘정치외교학과 학생총회’가 지난 16일 오후3시 정족수 1백55명중 83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국대(LA01)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방북교류 추진위원의 건설은 방북교류추진위원회에서 김일성대학 정치외교학과 공동세미나를 제안하자 세미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발전적인 토론을 진행했으나 추진위 건설은 다음 임시총회로 미루어졌다.

“뜨거운 가슴으로 동아리 연대를, 동원 발대식, 신규 동아리 ‘바람소리’ 인가

‘제6대 동아리연합회 발대식 및 신입생 환영회’가 지난 12일 오후 3시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신입 동원 부회장이 이영아(인문4)양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행사에서 신임 동원회장 김태진(국문4)군은 인사말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 더욱 강한 연대를 갖는 동아리인이 되자”며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장 권오철(화학4)군은 축사를 통해 “제6대 연대의 출범을 축하하며 민자당의 정국수에서 민중해방투쟁의 선봉이 되는 동원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민자당의 본질을 폭로한다’는 주제로 동원 학습부가 마련한 공경회가 진행되었는데 민자당 창당을 파시즘적 보수연행과 친미반동야합 두가지 견해로보는 내용이 주로 선포되었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동아리 재등록 및 신규동아리 등록은 기존의 60개 동아리가 모두 등록했고, 바람소리, 카톨릭학생회, 비교종교연구회, To-To축구회, 우리들의 일터 등 6개 동아리가 신규등록 신청을 했으나 지난 6일 운영위의 심사에서 바람소리만이 통과되어 정식 동아리로 인가받았다.

이번에 신규인건된 바람소리는 레저스포츠클럽으로 패러글라이딩과 윈드세핑, 스키, 목욕수업 등을 하는 동아리로 우수한 장비와 활동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 야구대회 성황

‘백상기정발 교내야구대회’가 야구동아리 LAE주최로 지난 2일부턴 21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25일 결승전을 치를 예정인 이번 대회는 지난 17일 현재 영문과, 기원학사등 5개 팀으로 우승팀이 좁혀졌는데 그동안의 우천관계로 일정이 늦어졌다.

도서관 ‘벌레들의 행진’

.....도서관이 불비면서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러움을 사는 유형이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꾸꾸하는 ‘밀실·밀에형’이라고.

밀실·밀에형 창출들은 도서관을 데이트장소로 이용하면서, 칸막이가 잘되어 있는 책상에서는 수상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고.

이에 본회전주대주 한마디

는 참고도서를 전국유명서점에 가서 구할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은방울 도서관의 입장을 대변(?)한 이 대저보는 한학생이 자신이 겪은 도서관의 후진성과 비교(?)에 대한 비판을 다른 학우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호소로 오늘 의 도서관 문제의 실상

‘파업전야’ 생방송 중계

○·6공방송국 제작, ‘파업전야’가 지난 12일부터 영화 제작사상 가장 많은 엑스트라가 동원된 가운데 있었다는데.....

徐謙 KES 사장의 묘안을 요구하는 KES 노조에 영

작품 ‘KBS’ 파업전야(?)가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에, TV, 라디오 생방송중 이라고.....

군대 전방보다는 나아야죠.....

○·동국관 안에서는 요즘 입오군란을 방불케하는 학생들의 불만의 소리가 요란하다는데.....

내용인 즉,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동국관 식당의 음식 질이 좋지 않아 밥을 먹



6공 방송국 제작·영등포경찰서 후원... KBS파업전야 방송

“공부벌레들의 집합소(?)가 아닌 신(新) 데이트장소(?)가 되거나 않을까 우려가 되는 구로.”

은방울 주변 서점 ‘성향’

○·“여러분! 도서관에 없

을 성도했는데... 안중근의사가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틀린다’고 경고했음을 학교교양은 어느지 모르는지 묵묵부답이요, 보면 결국은 학생들만 희생이 되나봅니다

등포경찰서소속 백골단 9백여명이 KBS에 투입, ‘파업전야’를 찍었다고.....

장산꽃메가 찍은 ‘파업전야’는 상영을 금지시키고 압수수색하더니 6공승인, 영등포경찰서후원, 안기부묵인

고 나오는 학생들이다 “삼기 위해 먹는다”고 소리를 모으며 불평·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예비역 조총령 하는 말이 “그때도 군대 전방보다는 나는데 뭐?”라며 실소.

미도파-인간순례 1

거만한 땅, 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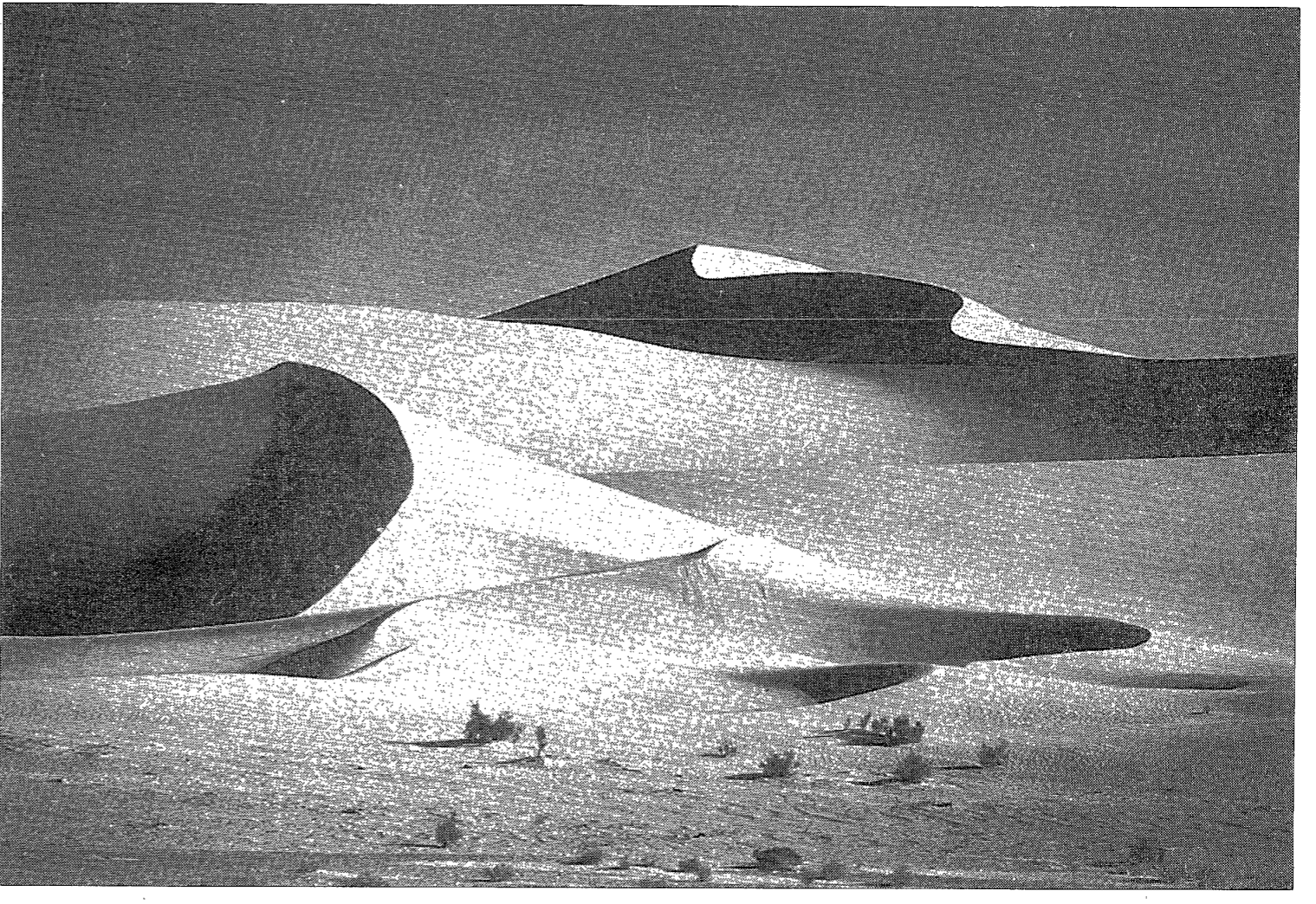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지속하는 모래와 갈증의 땅, 사하라. 피로와 갈증으로 쓰러져 죽어버린 나라의 해골이 태양과 모래에 짐식되는 모습을 곧잘 볼 수 있는 사하라에도 예전엔 물이 흔하고 문명체계를 갖춘 사람들이 살았었다는 사실을 타실리나제르의 벽화나 사막 곳곳의 석기문화의 잔재 혹은 배를 타고가는 전사의 모습을 묘사한 벽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허용치 않으려는 거대한 땅 사하라, 그 땅에서 이루어졌을 사라져버린 문명을 오늘에 사는 우리는 과연 낭만적 과거의 미스테리로 둘러싸이고 말아야 할까?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막 속의 200만 인구, 그들의 생활은 단지 과거의 연장 선인지, 끝없는 인간의 도전인지...



과거로의 도전 미래, 2000년대로의 도전 젊음의 끝없는 도전은 역사를 꿈틀거리게 합니다.

아랍어로 황아라는 뜻을 지닌 사하라.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덮고 있는 폭마른 땅 사하라를 걸출 붙여나는 그 면적-대서양에서 홍해까지 약 5000km, 남북으로 약 1500km-으로 인해 안개가는 전 아프리카를 사막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문학은 삶속에서 육화된 체험 담는 그릇

신입생을 위한 문학교실- '김형수' 시인의 강연을 듣고

문학의 인력에 편 집된 꽃망울에 4월의 따스한 봄비가 내리 비추던 4월6일 오후3시 학내 문예동아리인 동국문학회가 주최한 '신입생을 위한 문학교실'이 열렸다. 이 행사는 신경영, 조경래, 황석영 등 선배문인들의 활발한 문단활동과 본교 출신 신인들의 신춘문예의 잇단 당선 등으로 한층 고양된 동국문학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가려는 동국문학의 어린 씨앗인 신입생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이 행사에서 강사로 초청한 김형수 시인은 백진기, 정도상씨 등과 함께 민중문학 문예지(녹두꽃)의 편집위원이자 민중시(2)로 등단, 서사시(저리산), 시집(애국의 계절)로 알려진 대표적 문예 활동가이다. 시인은 이날 강연을 통하여 "문학,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면서 "문학은 관념의 토라나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삶 속의 육화된 체험으로 민중정서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설과 미담의 시가 전통으로 자리매김된 그의 정서가 민중정서와 유리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 창작방법으로는 시에 나타난 인물(화자)의 삶 속에 철저히 배어들

로 해서 진출한 정서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시어의 선택이나 창작의 첫 단계는 '자기생활'로부터 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학교실)을 시종한 성실한 강연과 참가 신입생들의 빛나는 논쟁을 보면서 이 시대의 올바른 문학인의 정립은 비단 문학운동에 앞선 문예인들에게 국한된 문제제가 아닌 이 땅을 사는 역사주체들 모두에게 주어질 과제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문학은 심미적 기능과 실용적 기능의 두 바퀴를 단체, 인류에게 정서와 사상을 전달하는 충실한 수레로써 공헌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학운동의 저급까지의 전개 과정은 대강 70년대 유신독재에 항거한 '자유실천 문인협회' 등 민주주의의 문학실천과 민족문학론을 등

중문학의 도래를 부르며 된다. 이른바 창작과 비평 그룹의 (민중 문학론)은 시민의식-민중의식-본문 극복 의식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체광적등 진보적 문학인들이 의해 (민중 문학론)으로 발전, 지식인 작가에 의한 민중적 요구의 대리표현이 "민중의 문학생산"으로 전환되어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뜻

의 이념성과 서정성의 문제등 토론을 벌이며 올바른 문학관정립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 새학자들이 여러 대학에서는 신입생 문학교실이 열렸는데 지난 3월 29일에는 이화여대(반도문학회)에서 도종환 시인, 4월 13일에는 숭실대(다행, 실백문학회)에서 소설가 정도상씨등의 문학강연이 다수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을 이룬 반면에 동국문학회의 (신입생을 위한 문학교실)은 촉박한 행사일정으로 인한 홍보부족과 학우들의 참여가 적었던 점이 내내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의 (신입생을 위한 문학교실)은 성실한 강연과 참가한 신입생의 초롱한 눈망울로 채워져, 이 행사의 열기가 동국문학 정신에 골골이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와 김형수 시인의 시집을 다시 펴 읽어보았다.

진 선옥 (사범대 국교과)

창작의 첫단계는 자기생활로 부터 출발

홍보부족과 학우들의 참여 저조 아쉬기도

다.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서의 실용적 측면에서의 문학에 바라보는 관점의 제적으로 문학이 언어를 통하여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는 80년대에 대두된 "문학이 전체 사회변혁 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문예운동론

한 문학이념의 구체화 단계를 거쳐 80년대 광주민주항쟁의 "대중적 토대"가 결여된 주제역량과 비파라적 변혁이론에 기반한 운동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통하여 소

이날 (문학교실)은 동국문학회장 인사, 서울지역 대학생 문학연합회(건중위)의장 인사, 시낭송, 문학강연, 문학의 소개, 신입생 5명까지기와 뒤풀이등으로 이어졌는데 참가한 신입생과 초청강사, 문학회 회원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문학에서

참사랑 실천의 씨앗 '사랑의 삼각핀'

-KBS '100세 퀴즈쇼'를 보고

漢字중에서 사람인(人)은 '인간'이란 걸로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이렇듯 인간이 서로 한데 어울려 살아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보기 좋고 호호한 일임에 틀림없다. 극심한 자본주의의 횡포안능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근대에 1대 의로

마흔아홉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마흔아홉의 후원자로 나선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연말연시만 되면 우리는 '후원자'로 지칭되는 많은 사랑을 볼 수가 있다. 양로원과 고아원등에 한이름 선물을 안고 찾아가는 인정많은 사

여유가 웬만큼 됐다든 물적기반의 이유로 있었지만 너무나 개인주의가 만연된 요즘, 그 생각만큼은 바람직한 현실이 아닐까. 60세, 70세된 노인에서 10대 손



△사진은 작년말 맺어진 가족을 초대해 소개하는 장면.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1년 보냈다.

자들까지 3대가 함께 모여 퀴즈를 풀이하는 한가족의 훈훈하고 정다운 모습은 노인들을 모시기 싫어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대가족체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특집프로그램인 '사랑의 삼각핀'이란 우리민족의 좋은 풍습내지는 관습으로 여기는 '인정'과 '배려'의 단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이 평범한 사람들이 소위 메스컴을 타보려는 측면이나 2대의 후원자들의 물적기반에서 단 한사람의 자기과시가 되지 말라는 점도 결코 없다.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이 좋은만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삼각핀'은 지속적인 사랑의 무대가 되어야 하며, 이제 우리모두는 주변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진은 작년말 맺어진 가족을 초대해 소개하는 장면.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1년 보냈다.

한노인, 3대는 부모없는 어린이, 2대는 후원자로 이루어진 이들 세사 팔백을 연결하여 한 가족으로 맺어주는 TV프로그램이 있어 못 사람 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랑의 삼각핀'

이른 현실속에서 마흔아홉의 후원자들은 따스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추운겨울에만이 아니라 연중 생각해보아야 함을 깨우쳐 주었다. 나랏고 살기에도 비싼생활 그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한가족을 이루기하려는 2대 후원자들은 물론, 남을 도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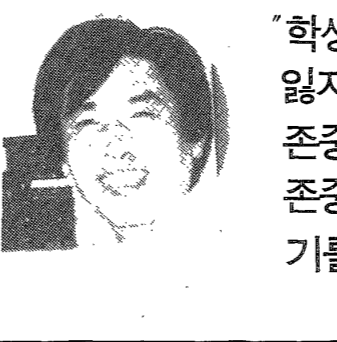
이들을 돌러보는 시간과 마음들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끈끈한 인정으로 맺어진 마흔아홉의 가족이 행복이상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아름다운 우리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운옥기자)

학생들과의 인간관계 소중해

—손봉오(前 학생회관 수위) 아저씨를 만나서

'야 그들 점심먹었?' 언뜻오면 이런 들어와서 같이 먹자'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님보다도 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학생회관을

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것 같다. '한편은 여학생이 술을 먹고 인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자기인격을 존중하듯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대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나드는 학생들 모두를 아저씨처럼 멀쩡히 보살펴주던 손봉오 학생회관 수위아저씨가 교수회관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지난 76년에 학교에 부임한 이래 명진관, 안암동기숙사, 과학관, 금강관, 학생회관 등을 거친 손아저씨는 "10년이란 장산도 뒀는데 13년동안 학교에 있었으니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발전했나"는 기자의 말에 "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변한게 없다"며 "학교발전은 학교 당국에게만 맡기지 말고 이제는 교수·학생·재민·직원 모두 하나로 뭉쳐 동국발전을 이룰때"라며 남다른 애교심을 보인다.

학생회관을 떠나면서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정이 많이 들어 무척 섭섭했다는 아저씨는 학생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너무 정지일만도로 자칫 순수성이 결여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 학생회관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단지 학생회관은 전체

사물성이며 아저씨가 열려있어서 순수 울려준 적도 있다"고 격정스레 말한다. 작년 겨울 백담단이 학생회관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말에 학생회관 재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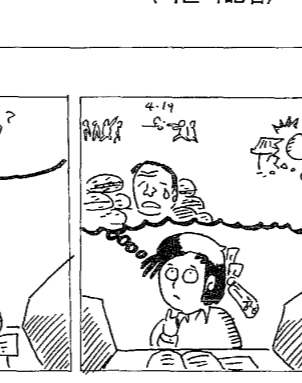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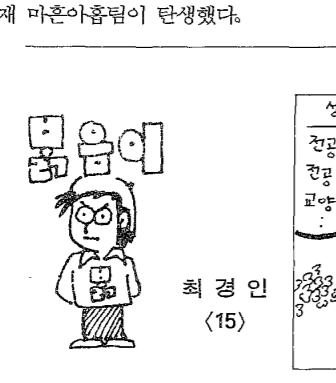
가장 가슴이 아팠다며 "수위에게 비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 등을 부수고 수배어부도 가리지않고 학생들을 무지하게 연행한 것은 학생의 신성성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라며 왜 이런 일들을 학교직원에서 대응하지 못하는지 의아하다고 흥분한다. 에피소드가 있다는 말에 지난 구정 근무중에 학생들이 술을 싸와서 같이 나눠먹으면서 게임도 하고 놀았다고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니 꼭 신문에 적여달라. "학생회관 근무시 학생들에게 술을 많이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모두 애정의 표현이었음을 알려달란다. "너희들 신문사 기자들도 너무나 학생편에서 서서 학교측을 깎아내리시 말고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보았던 신문들에 대해 나름대로 선수를 괴려하며 알뜰을 날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동국인의 한사람으로서 전체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려는 기자의 말에 "학생회관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너무나 매사에 걸린을 소홀히 다루는 것 같다. 자기들 건을 아끼는 마음에서 학교물건을 아끼는 마음으로, 남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대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는다. (英)

이웃돕기는 '연말행사' 아닌 '연중행사'

하는 인정어리고 정성이 모인 사랑의 무대였다. 작년말 첫 방송이 나간 이후로 두번째 방송이 되면서는 날름을 파는 아주머니를 비롯해 가난한 장애인, 못배워 한이 된다는 아저씨까지도 후원자로 나섰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가족들은 현재 마흔아홉이 탄생했다.

이런 현실속에서 마흔아홉의 후원자들은 따스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추운겨울에만이 아니라 연중 생각해보아야 함을 깨우쳐 주었다. 나랏고 살기에도 비싼생활 그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한가족을 이루기려는 2대 후원자들은 물론, 남을 도울

이들을 돌러보는 시간과 마음들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끈끈한 인정으로 맺어진 마흔아홉의 가족이 행복이상으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아름다운 우리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운옥기자)



노동자 세상

▲지 금으로 부터 약 1억년전 지구에는 인간의 조상인 유원원들이 무리를 짓고 살았다. 주로 나무위에서 열매등을 따먹으며 생활하다 막대기, 돌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익혀서 짐승을 잡거나 나무뿌리를 캐먹을 수 있게되었다. 비록 미약한 도구로 활동이지만 상당한 생산물을 획득하게 되고 노동의 참맛을 알게됨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지리적·자연적환경을 극복하고 의사교환수단인 언어가 생겨 자주적, 창조적인 오늘의 인간으로 성장, 만물의 영장으로 발전하게된 것이다. ▲이렇듯 인간이 발전하게된 근본 요인은 바로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된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노동의 추위는 누구인가, 물론 노동자이다. 그런데 오늘의 노동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루 10시간이

상의 철야근무와 전염에 시달리고 내집이나 마련하는게 소원이 라면 이빨을 악물고, 죽도록 일한다. '외망 보이시잖아 나, 외망 내일이기보다는 각성스런 내일'이 바로 우리 노동자의 삶이고 모습이다. 최저생계비요구, 노동자 세상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위해 노조 설립에는 당연스레 식칼, 용도가 가 동장하니 이게 정말 누구의 세상인지 의문스럽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참 노동자세상을 위한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인데 현재 독점제법과 결박한 현실권은 온갖 이데올로기공세와 정치적 압력등 파괴책동으로 그것마저 빼앗아 인간살이 다. 단방회원장을 구속하고 권

유목부위원장은 수배중이며 전노협가입노조는 세무사찰업무로 탈바꿈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은 지배계급에 의해 착취, 약탈된채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억압-선전받고 있다. 막고 살기위한 생존수단으로 전락한 노동이 본래의 건강하고 창조적이며는 상실되고 노동의 주체인 대중에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 노동과 노동대중이 진정한 노동자의 주체로 우뚝서고 이를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는 건설되어야 한다. 지배계급이 착취의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인구의 과잉을 약탈, 착취, 전노협수투쟁만이 가능하며 전노동주체 모두가 하나되어 할 것이 다. 내일이 특제의 폭압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난 바로 4·19혁명의 그 날이다. (鎭)

새로운인간체질

새로운인간체질

마스·앵겔스 문학예술론

조만영·정재경 옮김

이 책은 마르크스 레트 클림프 편집하여 1967년에 동독의 디즈틀판사에서 출간한 마스·앵겔스 '문학 예술론(Literatur und Literatur)' 2권 을 우리말로 옮겨놓은 4권 가운데 제1권이 독입어판 머리말에 씌어져 있는데 이 책은 9년에 걸친 치밀한 편집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것으로, 여러가지 마스·앵겔스의 문예저작 선집들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내용과 체계를 갖춘 완결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들불개간·4천5백원)

새로운 사회학 강의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엮음

이 책은 한국 산업사회연구회 연구가 그동안 지향하고 추구 해 온 '민중적·민주적 시각'에서 집필된 '사회학개론'의 대대 교과서'이다. 사회학이 하나의 분

과학문으로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우리 사회학계를 거의 지배해왔던 것은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이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연구동향들이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책은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문적체계를 세웠다. (미래사·4천5백원)

한국불교에 띄운 화두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편저

이 책은 한국 교수불자연합회 회가 펴내는 두번째 논문집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정기법회와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통해 오늘날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분석해 보고 그전망을 탐색해 본 내용들이다. 이 글들은 현대사회의 제문제 불교적 안목에서 생각해 보고자 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접근하도록 이끌어 줄 것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들이 좌표를 설정해주는 이정표가 된다. (우리출판사·4천원)

사회주의의미래와 과학기술혁명

김성환 옮김

이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과학과 기술의 '정치경제학, 과학과 기술의 '자본론'이라 할 수 있다. 1986년 고르바초프는 제 27차 당대회에서 과학기술

의 가속적 진보를 바탕으로한 소비에트 사회경제의 가속적 발전이라는 논설을 선했다. 이 책은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논설에 따라 그리고 이 논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의 진보, 그리고 이진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있다. (푸른산·4천5백원)

학급운영

전교조 엮음

이 책은 학교현장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보람있는 학급운영을 할 수 있는 작은 지침서로 활용하기위해 많은 선생님들의 실천고, 반성했던 노력의 편린을 전교조적인 노동조합에서 모은 것이다. '학생을 어떻게 불 것인가.' 소위 하는 학급활동등의 전'장으로 구성된 이책에는 '사장이 넘치는 교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실현'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있다. (들불개간·5천5백원)

청년학생운동

김태호 지음

변혁의 역사에서 청년학생은 항상 민족과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해오는데 앞장서왔다. 이책에서는 변혁운동의 사상적 해방에 입각해 밝혀진 청년학생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해서 운동의 실천적진보를 모색하고 아울러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단결의 실현 원리와 방법을 수립해 주고 있어 청년학생들에게 청년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체를 조화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조국판·4천5백원)

레닌주의와 현대사회주의의 제문제

김철수 옮김

로이메드베제프(소비에트 최고회의 의대)를 위헌위헌위원장)가 지은 이 책은 1980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주의의 역사적 행로를 본질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지금의 사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심층적으로 예고하고있다. 전'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역사적 안목에 의해 역사를 검토하고 있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자기비판서로 평가받고있다. (새물결판·5천5백원)

젊은 마르크스의 시

석지현·김형숙 옮김

이 책은 대학 시절 알트슈타트의 마르크스가 그의 예언에 기대었던 사랑의 서정시를 엮은 것으로 그의 시에는 자유분방한 감정과 비범한 사랑, 무한과 영원의 사색들이 한데 엉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의 시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흐름은 '사랑'으로 시대인식과 사회비판의 심장이 뛰고있는데 이런 그의 시정신은 빛남(차분함)으로 확장되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풍경판·2천5백원)

새벽출정

방현석외 지음

방현석·정화진·박해운·김현수·박진자·한백·김홍근의 7인의 노동자가가 지은 80년대 대표노동소설을 엮은 책으로 세계의 주인공 진보적인 노동

자의 삶의 기록을 문학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치열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의 가슴아픈 자기고백이면서 승리의 향사회이기도 한 이소설은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평가되고있다. (녹두판·4천원)

우리겨레 위대한 이야기

백기환 지음

이 책은 백기환 선생의 옛이야기들을 묶은 것으로 외래제국주의·상업주의의 폐해에 대항한 민족문화·민중문학을 창조해 낼 오늘

의 노동현장, 농촌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숨쉬는 무기로서 요구될 수 있다. '우리겨레의 전형적 인물들, 민중해방사상의 뿌리를 찾아서, 위대한 우리 민족문화의 전'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 민족문화·민중해방사상의 실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민중통일판·3천5백원)